

코스피 1700선 펀드 대량 환매 우려

가입기간과 맞물려 환매 압력 거세질 듯...주가 하락 염려

코스피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1700선에 근접하자 대규모 펀드 환매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증시에서는 특별한 모멘텀 없이 나올 연속 상승한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순유출이 나올 연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지난 5일~10일 연속 상승하면서 1660선을 회복하는 동안, 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나올 연속 자금이 순유출돼 166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펀드 환매 압력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도 똑같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코스피지수가 1696선까지 회복되는 동안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1조4966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으며, 올 1월에 지수가 1722선까지 회복되면서 1월에만 1조374억원이 순유출돼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의 이러한 펀드 환매

요구는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한 투신권의 판매도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지난 연말 연초 랠리에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찍었던 1월 6일과 재차 반등해 1722선까지 올랐던 1월21일까지 투신권의 매매 포지션을 살펴보면, 투신권은 1월 4일~26일까지 17거래일 중 11일만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1조5362억원 어치를 시장에서 팔아치웠다.

전문가들은 1700선을 기점으로 한 펀드환매의 압력 증가의 원인으로 1700선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다수의 적립식 펀드 가입자들에게서 찾고 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내 증시가 급등해 처음으로 1600선을 넘어선 이후 1700선 이상에서 25조2000억원의 순유입이 이뤄졌고, 그중에서도 1700선 이상에서 유입된 주식형펀드 자금의 80% 가량이 적립식펀드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들 펀드 가입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드 수익률 반토막을 경험한 이후 2009년 국내 증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지수가 재차 1700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환매 욕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봤다가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1700선이 원금을 넘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분기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년 만기로 가입했을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만기가 시작돼 환매 우려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체의 한 관계자는 "1700선 이후에도 방향성만 확실하다면 투자자들이 펀드를 더

들고 가 환매 압력은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출구전략 우려 등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1700선에 근접할수록 환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봤다가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1700선이 원금을 넘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분기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 30%를 강화·예금보험요율 인상 검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은 최근 몇몇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계기로 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체 대출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 짓는 비율을 규제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자기자본 기준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해 계열사를 통한 과도한 PF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대출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30%를 넘지 않도록 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은 오는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부실 저축은행으로 인해 예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위한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말 영업정지 당한 전일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체 저

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기존 0.35%에서 0.05%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의 부담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다. 4월까지 논의를 마친 후 TFT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상 시기까지 결정지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며 인상율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재무건전성과 고객 피해 방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증시전망

박스권에서 업종별 빠른 순환매 예상

거시지표 확인 필수...수급 고려 저가종목 바람직

이번 주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대내외적인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주 초반에는 EU의 정상회담과 주 후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월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산업생산과 목요일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발표 등의 재료가 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증시 내부적으로 종목과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을 고려한 저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코스피지수가 1660선에서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울러 유럽발 악재 등 주요 리스크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한주는 거시경제지표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지난주 금요일 저

녁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매판매와 월요일 나오는 2월 산업생산, 목요일의 경기선행지수 등에 따라 미국 증시의 향방이 결정되고 국내 증시 역시 이 영향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매크로 지표의 확인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수의 상승 여부를 떠나서 저평가 된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은행이나 보험을 비롯해 중소형주 중에서는 IT나 자동차 부품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의 EU정상회담과 주 후반 FOMC회의가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는 뚜렷한 주도주가 부각되지 못한 채 종목 및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어 박스권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정준양 포스코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 포스코는 여성경제활동 보장과 안심보육을 통한 저출산 해소 정책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업무효율도 제고를 위해 12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1층에 총 6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424㎡ 규모의 '포스코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사장의 '요리사랑'

현대카드·캐피탈 정태영 사장(사진)의 특별한 요리 사랑이 화제다. 정 사장은 지난해 두바이 버즈 알 아랍의 칠성급 호텔 출신 주방장 장갑성씨를 스카우트 해 임직원들에게 최고급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구내 레스토랑은 조리장 1명, 영양사2명, 조리사4명, 조리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테리어는 모던하고 세련미가 풍긴다.

점심 메뉴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메뉴가 시의 적절하게 나오

는데 최고의 요리사가 최상의 식재료로 만든다 보니 말이 구내식당이지 일류 호텔식당을 능가하는 것. 구내식당이 특별하다보니 정 사장도 단골손님이 됐다. 손님과 식사를 할 때면 외부 음식점이 아닌 꼬박꼬박 구내식당을 찾는다. 더욱이 외부 일정을 때는 특별 주문을 해 사장실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정 사장의 '요리 사랑'이 이처럼 각별하다 보니 현대카드 구내식당은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다고



현대카드 관계자는 "직원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고객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경영철학이 요리사랑으로 구현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etoday.kr

www.fsb.or.kr

반갑습니다! 더 좋아진 '저축은행'입니다

서비스가 더 좋아집니다
펀드에서 신차까지, 금융의 모든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편리함이 더 좋아집니다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투명경영으로 고객의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전속모델
방송인 강수정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0.2.28 상호저축은행법 국외 분회 통과

Seed Money Bank
저축은행 SB

건설사 "힘들다 힘들어"

유동성 악화에 담합조사까지

건설사들이 유동성 악화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겹치면서 이 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사정이 가혹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 받을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2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사업을 비롯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등 터기입찰에 대한 담합의혹 조사를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주요 4대강사업 터기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사가 소환대상이며 지난해 입찰이 실시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터기공사 수주업체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건설사와 설계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보강 작업 차원으로 보고되고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공정

위 조사결과와는 빠른 시일 안에 나오는 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서 "4대강 터기입찰 담합의혹과 관련 조사 완료 시점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정위 카르텔 조사는 길게는 2~3년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달청이 낙찰률이 높다며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등은 4대강사업보다 조사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소 0.3%에서 최고 10%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주공아파트 등 500억원 공사라면 최고 50억원이지만, 한 기업이 아닌 여러 건이 대상이어서 담합으로 판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수 있다.

4대강이나 인천지하철 등 1000억원이 넘어가는 토목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설경진기자
skj78@e-today.co.kr

정의선부회장 등기이사...대표이사 불발

이사보수 한도 150억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이 주총에서 등기이사에 선임됐으나 관심을 모았던 대표이사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또 사외이사 5명 가운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김동기, 이선 이사를 대신해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을 신규 선임했다. 남성일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보다 50억원이 늘어난 총 150억원의 이사보수 한도가 승인됐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kr

Inside



CEO초대석	지코엔터테인먼트 이승익 대표	4면
지배구조	현대그룹	21면
지상IR	세인시스템	23면

계열사에 돈빌려준 코스닥기업 '주의'

모회사 위험 전가 가능성...거래소 "제재 수단 없다"

일부 코스닥상장사들의 자금 돌리기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적자기업, 한계기업들의 금전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기업의 경우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금전대여의 방법을 통해 회계상 감가상각을 하고 합법적으로 자금을 빼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관계사끼리 자금 거래가 늘고 있다"며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열사를 도와주는 행위는 자칫하면 모회사의 경영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특히 차입을 통한 대여금 조달은 계열사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모회사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금전대여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정확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면 좀 더 명확하다.

코스닥상장사는 대여 금전 규모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의무 공시사항에 해당한다. 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의무 사항이다.

반면 이외의 경우에는 '자진공시'에 해당해 상장업체가 원할 경우 공시를 하면 된다.

작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가 계열사 또는 기타 관계 회사에 금전 대여를 했다고 공시한 것은 총 56건. 이 중 35건이 자기자본의 10%(누적 10% 이상도 포함) 이상 금액을 대여했다.

이중 적자를 내거나 적자전환한 기업은 카이시스, 비엔알, SNH 등 총 13개사다.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카이시스는 지난해 12월24일 30억 원을 출자해 카이원홀딩스를 설립, 랜드마크필코, 피엔 에이건설, 해교코리아 등 3개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고 주식으로 출자전환

했다.

또 총 세차례에 걸쳐서 카이원홀딩스에 자금을 대어해 현재 총 132억 원을 빌려줬다.

4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면서 현재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비엔알은 지난 1월 15일 자기자본대비 35.78%에 달하는 28억 원 을 BNRUSA에 이자를 5%를 받기로 하고 대여했다.

역시 4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상폐위기에 처한 스타맥스는 현재 2012년말 까지 자회사인 가오닉스

스포츠에 자본금 대비 198.22%에 달하는 138억 원을 빌려준 상태다.

이밖에 SNH, 단성일렉트론, 테라리소스, KJ프라이텍 등이 영업 적자기업인 상태로 현재 계열사 및 관계사에 자본금 10% 이상의 자금을 대여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공시팀 관계자는 "규정상 공시여부에서만 거래소에서는 관여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기업들이 금전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제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고종민 기자 mywish73@e-today.co.kr

2009년 이후 금전대여 공시 코스닥법인

기업명	대여대상기업	자본금대비	이자율	대여금액	관계
카이시스	카이원홀딩스	20.91%	5%	40억(142억)	계열사
비엔알엔터	BNRUSA	35.78%	5%	28억(28억)	계열사
스타맥스	가오닉스스포츠	198.22%	9%	138억(138억)	관계사
캠백스&캐벌	캠벨팩스	21.14%	8.5%	83억(195억)	계열사
SNH	에이논	8.9%	9.0%	50억(170억)	계열사
에이오션	아이비김영	31.98%	16%	120억(120억)	기타
골드오일	kogonay E. Inc	5.36%	9%	89억(120억)	계열사
지프리트	아시아홀딩스	16.87%	7%	36억(49억)	자회사
단성일렉트로	한국디에스올라	13.2%	9%	68억(74억)	계열사
프린세스이디	노에드테크	21.31%	9%	90억(90억)	계열사
글로벌비스	랜드볼블리마	10.89%	15%	60억(60억)	계열사
테라리소스	한카리시아	27.75%	6%	70억	계열사
에달	테라리소스	26.8%	9%	100억	계열사

적자전환 또는 적자기업, 이는 누적 대여금액

韓·日, 희소금속 확보戰 치열

안정적 확보 위한 대책마련 사활...경쟁 심화될 듯

IT산업과 첨단산업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희소금속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으로서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희소금속은 리튬, 코발트 등의 금속으로 부존량이 적거나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추출이 곤란한 금속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산업육성을 위해 크롬·망간·리튬·희토류·텅스텐·몰리브덴 등 6개 희소금속을 '중전략광물'로 선정,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발표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이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희소

광물 부존량이 많고 인프라가 양호한 국가를 해외자원개발 중점진출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시에 국내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몰리브덴·텅스텐·티타늄·마그네슘은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계획 이외에는 아직 결음이 단계다. 특히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해 포스코, SK, LS 등 일부 기업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포스코는 300억 원을 투자해 바닷물을 이용해 리튬을 대량 생산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SK와 LS는 '도시광산' 사업을 통한 자원재활용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전략적으로 접근, 희소금속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다.

2000년대 이후 첨단제품 수요 증가로 희소금속 소비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일본의 무역회사들이 희소금속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쓰비시와 스미토모상사는 세계 최대 매장지로 추정되는 볼리비아 유이니 호수에서 리튬 추출을 모색하고 있고 도요타자동차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한 회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저금리 융자를 받아 아르헨티나 리튬-칼륨 개발사업의 지분 25%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스미토모상사는 작년 8월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공사 카자아토프로와 우라늄 광석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사업 착수에 합의했다.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쌀막걸리 많이 마셔도 농민 실익없다

술은 국산, 원료는 외국산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나 떡볶이 등은 왜 대부분 수입쌀로 만들까? 남아도는 쌀을 수출하면 될텐데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을까?

14일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자 "쌀을 돌려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떡볶이, 막걸리 등 가공 쌀을 대부분 수입산 쌀로 제조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수입 쌀은 모두 정부 비축분이다.

우리나라는 WTO 협상을 통해 쌀시장을 개방 않는 대신 일정 물량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

1995년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쌀 시장을 열지 못하고 관세 유예화를 택하면서 의무적으로 정부가 곡물 시장 입찰을 통해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첫 해 WTO 합의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즉 의

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은 2만5000t에 불과 했다.

그러나 매년 의무 수입물량이 2만씩 늘어나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차 의무화 기간이 지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차 의무화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의무 수입량이 32만7000t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 491만6000t의 6.7%에 달하는 양이다.

현재 수입된 쌀은 가격이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떡볶이, 막걸리 등 쌀 가공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수출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도 관세화유에 때문이다. 쌀 시장의 문을 닫아 놓고서 정부가 수출에 나서면 세계 시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 수입국이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 쌀 수출국이 되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농업 선진국으로 인식이 돼 매년 수백억의 의무 수입 물량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은 우리나라 주식이며 농가 주 소득원으로 매우 민감한 상품"이라면서 "쌀시장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던 1995년은 국내와 국제 가격 사이의 가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됐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에 연 40만t 가량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고 작황이 좋아지면서 공급 과잉 상태로 가격이 떨어지고 관세화할 경우에도 수입산과 가격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이한선 기자 griffin@etoday.kr

이투데이 漫評 (yoobil@hanmail.net) 유영수

세계 최고의 소유자들... 무소유 스님의 입적과...
 1위 세계 최고의 부자들
 2위 세계 최고의 부자들
 3위 세계 최고의 부자들



"잘해봅시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경련 3월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봉산 류진 회장, 롯데 신동빈 부회장, 포스코 정준양 회장, 이진산업 박영주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두산 박용현 회장, GS 허창수 회장, 전경련 조석래 회장, 대림 이준용 회장, 중앙 한재현 회장, STX 강덕수 회장, 삼양사 김윤 회장, 전경련 정책철 상근부회장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상사 지역 선점 경쟁 '가열'

종합상사들이 올해 신규 지사 및 거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는 트레이딩 목적의 거점마련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지역 개발자 또는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위상 다지기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상사는 아르헨티나에 거점을 새로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LG상사는 브라질 상파울로 지사에서 남미지역 사업을 포괄하고 있지만, 남미가 최근 들어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로 부상하

면서 추가 지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지사 및 거점 36곳을 갖추고 있는 현대종합상사도 올해 신규 거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현대상사의 글로벌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거점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SK네트웍스는 '비전 2020' 추진 원년인 올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점 확대와 함께 지역 해드쿼터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1995년, 2010년 쌀 시장 변화

	1995년	2010년
국내·수입산 가격차	가격차 큼	쌀값 내려 관세 부과하면 차이↓
의무수입물량	2만5000t	32만7000t

제품이 다르니까, 효과도 다릅니다

명작과 펜잘큐의 만남

피린계 성분이 없는 두통약-펜잘큐

뮌헨에서도 두통약은 효과입니다. 개인합이 확실해야 좋은 두통약입니다. 펜잘큐는 피린계 성분이 없는 두통약입니다.

두통·치통·생리통에

펜잘큐정

• 펜잘큐정 효능 효과: 두통, 치통, 생리통 등

• 펜잘큐정 부작용: 없음

• 펜잘큐정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알코올, 약물 복용 시 주의

• 펜잘큐정 가격: 1001-0400

• 펜잘큐정 판매처: 전국 약국, 편의점, 온라인

일진그룹 오너일가 농지증여 문제없나

허진규회장 딸 승은씨, 농지 4만㎡ 계열사에 증여...취득 과징도 의문 증폭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의 둘째딸인 허승은씨가 계열사에 농지를 증여하기 위해 용인시로부터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법성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허씨가 증여한 농지의 취득과정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일진레저는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 일대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설명회를 마쳤다.

일진레저는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현재 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부지 확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보 취재결과 일진레저는 지난해 12월말 골프장 계획부지내 허씨의 수십필지 농지를 수증해 명의 이전 받았다.

허씨가 일진레저에 증여한 농지는 지난 2002년 매입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30여필지·4만

㎡가 넘는다. 공시지가상 25억원에 이르지만 실거래가는 50억원이 못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원칙적으로 개인이 일반 영리법인에게 농지를 증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거래허가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하 국토법)에 관한 법률에도 농지 증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토법은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도록 덧붙이고 있다. 또 일반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일진그룹측은 용인시 처인구의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일진그룹에 납득하기 힘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내 준 셈이다.

법원 등기소 관계자는 "일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아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며 "증여에 따른 명의변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개인이 일반법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은 처음보는 사례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특히 허씨가 증여한 농지의 취득과징도 의문투성이다. 현행 법률

상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경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일진레저의 지분 대부분을 허씨 개인이 갖고 있는 점은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일진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감사보고서에 일진레저를 계열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진그룹 한 관계자는 "허승은씨의 농지취득 부분은 지난 2002년에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유섭 기자 hyon0214@e-today.co.kr



한은 총재 "나오 나" 차기 한국은행 총재 윤곽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청와대는 복수의 인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한은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중상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좌로부터) 등이다. 차기 한은 총재의 당면 과제는 금리정책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지 결정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춘천 롯데마트에 홈플러스까지...교통대란

홈플러스 춘천점, 18일 정식 개장...6월엔 풍물시장까지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지난 달 롯데마트가 들어선데 이어 인근 퇴계동에 홈플러스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 도심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퇴계동 옛 우시장 인근에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해 지난 11일 등록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9천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주차장 포함) 규모로 17일 4시간 가량 개장하는데 이어 18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곳은 한주, 금호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좁은 진출입로 때문에 출퇴근시간대 상습 정체가 우려된다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일대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파트 방향으로는 기존도로를 확장했지만 대형마트에서 김유정역 방향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편도 1차로로 협소해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도로는 내년께 완공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접근도로인 남춘천IC와 연결되고

반대방향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하이마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이어진다.

춘천시는 12월 개통하는 경춘선 복선전철에 따른 철도구간 변경으로 이 일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이나 편도 4차로의 호반순환로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개장한 롯데마트 일대는 오픈 당시 교통정체로 인근 편도 4차로의 호반순환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온의교차로에 이은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을 유발시켰다.

[춘천=연합뉴스]

이동통신 할부프로그램

소비자는 봉사사업자만 득

경기도에 사는 주무 서모(35)씨는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면서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서씨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기본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서씨는 "월 평균 통신 요금이 2만~3만원선인데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할부프로그램이 3만5000원부터 적용되고 있다"며 "통신사에서 무료통화와 단말기 할부 등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요금을 더 내는 격"이라고 말했다. 최근 무선인터넷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에 한창인 이동통신사들이 정책 발표와 더불어 요금제만 난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료통화와 문자, 무선데이터, 단말기 할부금 등 요금을 한데 묶은 이른바 통합요금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같은날 LG텔레콤도 'OZ 2.0' 전략 발표회에서 무한자유 플러스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미 이달 초 6종의 스마트 요금제를 출시한 상황에서 무선데이터를 추가한 상품이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1월 출시한 '모토로이'에 2년 약정 조건으로 통합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단말기를 올인원45 선택시 21만원, 올인원55 13만8000원, 올인원65 9만원, 올인원 80 선택시 1만8000

원, 올인원95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같은 이동통신 업체의 통합 요금제는 무선데이터와 무료통화 가 제공되고 단말기 할부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2만~3만원대 소량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하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할부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지만 1만5000원 가량 통신비를 더 지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본요금 1만3000원에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 안팎(기본료 포함)이라면 최저 통합요금제인 3만5000원을 적용시 표면적으로 50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무료 음성 150분을 10초당 18원으로 환산할 때 1만3400원이면, 기본요금 사용자가 150분을 다 쓰더라도 월 평균 2만3660원을

더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결국 통신사에서 적용하는 통합요금제가 단말기 할부 등에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요금 부담을 부추기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통 3사가 제시하는 무선데이터 정책요금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1GB 무료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사용자가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200~300MB 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나머지 700MB는 그냥 소진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요금제가 200여개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요금 확일화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초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제기 됐던 정책제가 단말기 할부나 무료 서비스로 인해 기본료가 상승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리점에서 할부 프로그램을 권유하다 보니 대부분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정책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초당요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쓴 만큼 부과되는 종량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이통사가 사용자들에게 큰 할인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료서비스에서 버려지는 데이터를 감안한다면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배근욱 기자 lob13@e-today.co.kr

정책때마다 요금제 난발...국내만 200여개 넘어 초당 과금제 정착 되기 위해선 정량제 검토돼야

특히 이통사가 정책발표 때마다 요금제를 개편하거나 추가하고 있어 기존 요금제 사용자들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KT는 지난 11일 기존 i-슬림, 라이트, 미디어, 프리미엄 등 4가지 스마트폰 요금제에 기본료 7만9000원의 i-스페셜 요금과 기본료 4만5000원의 i-토코 요금제 등 2가지를 추가했다.

i-스페셜은 기본료 7만9000원에 무료음성 600분, 무료문자 300건, 무료데이터 1500MB를 제공한다. 또 i-토코 요금제는 기본료 4만5000원에 무료음성 250분, 무료문자 300건, 무료데이터 100MB를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무료데이터 용량을 늘렸다.

원, 올인원95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같은 이동통신 업체의 통합 요금제는 무선데이터와 무료통화 가 제공되고 단말기 할부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2만~3만원대 소량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하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할부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지만 1만5000원 가량 통신비를 더 지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본요금 1만3000원에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 안팎(기본료 포함)이라면 최저 통합요금제인 3만5000원을 적용시 표면적으로 50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무료 음성 150분을 10초당 18원으로 환산할 때 1만3400원이면, 기본요금 사용자가 150분을 다 쓰더라도 월 평균 2만3660원을

금감원, 국실장 소폭 인사

조직개편 후속 15일 단행...본부장 인사는 5~6월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소폭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서 등·폐합에 따른 인사 필요성이 생겨 국실장급을 대상으로 15일 중 일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국제협력국장 정자 국장 후임으로 외부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기업재무개선지

원단체의 기업금융 1실과 2실이 합쳐진 차리는 기업금융 1실의 신용호 국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금융 2실의 김진수 국장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서비스국에서 바뀐 복합금융서비스국 책임자는 기존의 박영준 국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장이 대학원 연수로 자리가

빈 은행서비스본부 외환업무실은 은행서비스본부 내 부국장급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개편은 부서 통폐합으로 당소 폭이 늘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한 점을 감안, 소폭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빠진 본부장급 인사는 오는 5~6월 경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55세가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던 관행을 없애고 58세까지 현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現代建設

여기는 귀여운 악당이 사는 액션 스테이트

단장자는 아빠의 귀를 톡톡 집어당긴 과감한 액션! 이 녀석 덕분에 지금 이 곳은 액션 스테이트입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힐스테이트에선 우리 아기만의 건강한 이야기가 태어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스테이트가 필요하다. 당신의 스테이트. HILLSTATE

수원 정안 힐스테이트 문의: 031) 269-9779 인천 검단 힐스테이트 4차 문의: 1588-6544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IFRS 도입...과거 부실 털고 흑자전환 새도약

(국제회계기준)

덕산금속·금성테크 인수...단기보다는 장기투자자 혜택 볼 수 있게 경영



지난해 신종플루 마스크 출시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지코엔루티즈가 올해 본격적인 매출을 가동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의 부실을 모두 털어 내다보니 증시에서 어닝쇼크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흑자전환의 기틀을 흑자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코엔루티즈의 이승익 대표이사를 만나 2010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들어봤다.

Q 2009년도 실적이 많이 악화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번에 우리 회사는 상장사 중에서도 과감히 IFRS(국제회계기준)를 채택했다. 그와 동시에 지난 과거의 모든 부실 요소를 과감히 정리했다. 엄격화된 회계기준 시스템하에 더욱 보수적으로 모든 부실요소를 털어냈다. 철저하게 관리되는 재무제표의 틀을 만들지 못하면 계속된 부실의 요소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Q 그래도 어닝쇼크로 받아질 수 밖에 없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고해성사 하는 기분으로 과감히 다 드러냈다. 회사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혁신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해오고 있다.

Q 회계적인 요소 이외에도 어떠한 혁신을 기하고 있는가.

최근 본사를 이전했다. 당연히 경비절감 차원이고 절반으로 임대료를 줄였다. 회사의 실적대비 직원의 수

도 많았으나 기존의 인력을 절반이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 비용과 회계적인 요소 이외에도 회상 내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외부 유수의 컨설팅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Q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는가.

비용절감등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각 사업부별로 독립예산제 방식을 도입했다. 각 부서별 철저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신상발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업부서는 사내에서 자동 퇴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사업부문이 다양하다.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최근 산업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덕산금속을 인수했다. 연 매출 100억에 순이익이 약 10억 전후로 발생하는 안정적인 회사다. 그리고 비철금속업계 해외 판매 1위 업체를 자랑하고 있는 금성테크의 공조사업을 인수함과 동시에 양사의 사업적인 제휴를 충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무엇보다 이 두 회사를 통해 산업폐기물 재활용 매출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매출 포지션으로 잡힐 전망이다. 덕산금속은 현재 밀양에 공장이 있으나 경북 영천에 더욱 확장된 시설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Q 기존의 DNA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기존의 필터와 금연초 중심으로 되어 있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오히려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공조기(공기조화기) 생산과 시스템 환기사업으로 더욱 확장했다. 현재 1공조사업부는 안산에 2공조사업부(원지력 공조)는 안성에 공장을 두고 있다.

또한 화장품에 쓰이는 DNA는 줄기세포 화장품 또는 치료제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충북 음성에 있는 금연초 생산공장을 줄기세포 치료 연구소와 줄기세포 화장품 생산하는 라인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기존의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해외부동산은 성공시 많은 이익을 창출하지만 곳곳에 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올해 사활을 걸고 캄보디아 시장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생각이다.

Q 해외 부동산 개발은 리스크도 적지 않은데

그렇다. 하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외부동산 개발은 더욱 신중을 기할 생각이다. 오히려 요즘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제조업에 더 많은 애착이 간다. 회사의 주주들도 제조업에 더 많은 비중 확대를 요구한다. 주주들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따를 생각이다.



Q 올해 매출 전망은

요즘은 자본시장의 공정공시율이 강화되면서 이번 지면을 통해 밝힐 경우 공시위반에 해당된다. 조만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올해 사업계획과 매출에 대해 IR을 준비하고 있다. IR을 하게 될 경우 이날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밝히겠다.

하지만 확실한건 올해는 전년보다 더 많은 매출과 흑자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직을 걸고 주주들에게 약속한다.

Q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신종플루 마스크로 주가가 너무 고평가 된 바 있다. 회사의 내용대비 주가가 너무 오른 것도 경영진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요즘은 정반대인 시기다. 회사는 지난해 모든 약재를 다 치렀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실을 털어낸 재무제표도 발표했다. 요즘 회사의 각 사업부에서는 독립예산제 방식으로 인해 너무나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실적이 미진한 부서는 퇴출을 할 것이고 잘하는 부서에는 성과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상발벌이 명확하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더욱이 이번 정부가 그린 사업의 육성정책을 펼치는 것도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회다. 자원재활용과 대기 유해물질제거(공조·환기) 관련 사업은 분명 올해 안에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는 단기 주주들 보다 장기주주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승환 기자 lsh@e-today.co.kr

SolutionPartner



최고의 기술로 고객의 성공을 앞당기는

솔루션파트너 - LG화학

고객의 미래를 남보다 '먼저' 준비하고
고객의 고민을 남보다 '빨리' 해결하며
고객의 필요를 남보다 '자주' 확인합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을 비롯해 정보전자소재, 그린에너지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DNA 필터에서 공조등 4개 사업으로 확대

"실적 뒷바침되면 시장 관심주로 될 수 있을 것"

지코엔루티즈는 이승익 대표이사의 현 경영체제 이후 주식시장에 관심주로 떠올랐다.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자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던 지코엔루티즈는 수혜주로 주목됐다.

주가 급등을 틈 탄 유상증자라는 일부 시장에서 오해를 비난을 받으면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 추진을 위해 강행했다. 많은 투자자들은 지코엔루티즈의 성장성을 믿고 청약에 성공했다.

중자에 성공한 지코엔루티즈는 기존 해외부동산 개발 사업과 DNA필터 사업은 물론 산업폐기물과 환기공조 사업에 이어 줄기세포 등 4개 사업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코스닥상장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IFRS(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면서 과거 모든 부실 요소를 과감히 정리했다.

또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본사를 이전했다. 직원 수도 기존의 인력을 절반이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 비용과 회계적인 요소이외에

도 회상 내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외부 유수의 컨설팅사로부터 자문도 받았다.

최근에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덕산금속을 인수했다. 연 매출 100억에 순이익이 약 10억 전후로 발생하는 안정적인 회사다. 그리고 비철금속업계 해외 판매 1위 업체를 자랑하고 있는 금성테크의 공조사업을 인수함과 동시에 양사의 사업적인 제휴를 충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장품에 쓰이는 DNA는 줄기세포 화장품 또는 치료제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지난해 신종플루 테마에 편입되면서 고평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코엔루티즈는 단기주주들 보다 장기주주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대투증권 박종면 부장은 "지코엔루티즈는 시장에 관심주"라며 "실적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암행 감찰

금감원, 내달 3차 미스터리 쇼핑...60점 미만일땐 강력 제재

금융감독원의 오는 4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어 3차 미스터리쇼핑에 나선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은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이 펀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함께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암행으로 영업행태를 조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차 미스터리쇼핑을 앞두고 외부기관 선정과 평가기간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오는 3월 말 외부기관 선정을 마치고 4월 초부터 미스터리쇼핑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평가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판매관행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요구, 이번에도 60점 미만을 받는 회사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강력히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높게 나왔다고 해도 상품설명 의무에 대해 세분화해서 보지는 못한다"며 "이번 평가에서 연속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까지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하반기 미스터리쇼핑에서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13개사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HSBC은행, SC제일은행, 교보증권, 동부증권,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연속으로 우수평가를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미스터리쇼핑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연속으로 우수평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금융계는 미스터리쇼핑에 대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하반기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외환은행은 신규가입 고객에 대한 이용관리, 이미지 개선과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가입고객에게 창구직원에게 평가 질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연초부터 지역본부별로 2번의 집합교육을 통해 펀드, M&A, HSBC은행, SC제일은행, 교보증권, 동부증권,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연속으로 우수평가를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미스터리쇼핑 대상에서 제외할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금리인상 3분기는 지나야...”

지방선거·G20정상회담이후에나 가능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로 동결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이 새로 바뀌고 4월부터 굵직한 이슈들이 생겨나는 만큼 금리인상 시기는 올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성준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 시기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총재가 선임될 경우 금통위 위원들이 5월 새로 구성되고, 6월 지방선거, 6월말 20개국(G20) 정상화

담이 개최 예정 중이어서 그 전까지 금리인상 이슈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정준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현재 각종 시그널을 보면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되고 이때부터 정책결정이 나와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2~3분기 이후 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실질정책금리 마이너스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이 4%대 중후반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에 재진입하면서 안정적인 신용창출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인상은 7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이환 K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당초 오는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만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늦춰지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시기가 3분기에서 4분기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론스타 왜 연이어 외환銀 매각 말하나 꺼져가는 M&A 불씨 살리려는 의도



론스타가 연이어 외환은행 매각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매각 분위기 조성'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0일 래리 블레인 외환은행 행장이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알려왔다"며 "일단 매각주주간사를 선정할 뒤 수개월에 걸쳐 모든 후보와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존 그레이켄 회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한국시장에서 론스타가 올린 이익에 대한 정치적 이슈들이 있었지만 모두 해결됐다"며 "6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국내외적으로 매각 관련 발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은 침체된 M&A 시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분위기를 되살려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까지 외환은행에게 관심을 보였던 인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

다. 매각주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스를 통해, 또는 래리 블레인 행장과 리처드 웨커 이사회장이 직접 미국 등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물색하기도 했다.

미국 사모투자펀드(PEF) 텍사스퍼시픽그룹과 오르트리캐피탈도 직간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홍콩 리카싱 회장의 차남 리저카이가 이끄는 퍼시픽캐피탈그룹도 내부적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검토해 론스타와 접촉했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발 금융위기가 잇따르면서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투자자들이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론스타는 관망세로 돌아선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발언을 수시로 내놓으며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매각주주간사는 크레디트스위스와 재계약을 통해 유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투자자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외환은행 매각에 정통한 미국 M&A 한 관계자는 "현재 론스타는 시장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발언들을 관계자들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며 "시장 반응은 우

선 한국의 정치적 이슈인 6월 선거가 지나간 후에 주목하겠다는 의견이며 론스타도 그 이후를 대비해 몇몇 투자자들과 물밑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익을 보지 못했다 때문에 오히려 외환은행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만 팔 가능성도 높다"며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참여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큰 배는 급격한 방향전환 안 돼”

이성태 한은총재, 후임 총재에 금리인상 우회적 조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큰 배는 가속을 하는 것도 감속을 하는 것도 최우로 회전하는 것도 급격하게 바꿀 수 없다. 미라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차기 총재가 더 늦기 전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11일 사실상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초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 2006년과 2007년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염두해 둘 것은 큰 배는 방향전환이 빨리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로 움직인다 보면 지금 내가 서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 궤도에 있는 건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위치가 원래 가야할 궤도 근처에 있는 건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



했다. 이 총재는 "자신버릴의 짐 후가 현재는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지난 10년 사이 토지가격, 주택가격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물가상승률

은 2.5~3.0%로 예상되고 경제성장 속도는 금년 전체로 4~5%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2.0%는 분명히 금융완화기조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완화기조는 적당한 시기에 줄여가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단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 발언은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되려 어느 정도 물리는 조치는 멀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총재는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차차 생각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첫 한은 총재로 취임했으며 이달 말 임기 4년을 채우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은행, 건설사 연쇄부도설에 촉각

요주의 업종 분류 특별관리...구조조정도 본격화

시공능력 50억원의 성원건설이 법정관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은행권이 건설사 연쇄부도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성원건설 여신 관리에 비상이 갈린 금융권은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성원건설의 경우 총담금을 쌓아놓고 있는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항간의 떠도는 소문처럼 연쇄부도가 현실화 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과 다이와증권은 보고

서를 통해 성원건설만 본다면 대출규모가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이와증권은 "커버리지 내 한국 은행들의 총 익스포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해 2000억원 정도"라며 "은행들이 모두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신용비용이 3bp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다.

은행권 관계자는 "성원건설 파장이 전체 건설업체까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금융권의 여신관리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들은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선업과 건설업종을 요주의 업종으로 정해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과 협의를 끝내고 올해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작년이 미뤄졌던 한계기업 퇴출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제 기자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KB 금융그룹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667호(2010.02.12~2011.02.11)

드디어 아이폰으로 주식거래를!

KB 투자증권 iPlustar

KB iPlustar가 아이폰 전용 MTS(Mobile Trading System) iPlustar(아이플러스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앞서가는 당신이라면 iPlustar로 한번 더 앞서가세요!

KB투자증권 iPlustar 출시기념 무료수수료는 기본! 선물까지 평평! 기간: ~ 2010년 3월 31일까지

이벤트 기간동안 iPlustar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료가 무료! (단, 유관비용 제외 / 이벤트 이후 0.12% 수수료 적용)

선착순 5천명, 추첨을 통해서도 푸짐한 선물이 평평!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가까운 KB국민은행에서 KB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세요
- 주식 등 투자상품은 고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KB투자증권은 이러한 상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 iPlustar를 검색해 보세요

고객지원센터 1599-7000 www.kbsec.com 투자 휴머니즘 KB *b 투자증권

하나SK, 모바일카드 발매 차질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연기...기존 방식으로 일단 선회

하나SK카드의 모바일 신용카드 발매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SK카드사는 출범 이후 모바일 신용카드를 독자적으로 출시해 접 유율을 높일 예정이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3월 중순 출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사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달 중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본인인증 등 보안상 문제로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SK카드사는 금융감독원과 모

바일 신용카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본인 인증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IT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하나SK카드의 모바일 신용카드의 특징은 OK캐쉬백 등 다양한 포인트 프로그램을 넣고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과정을 없애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명으로 본인 인증하는 방식을 벗어나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 한 번에 본인 인증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보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고객인증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SK카드 관계자는 "일단 3월말까지 서명이나 패스워드 입력 방식의 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지만 정확한 발매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김현희·김현정 기자 maru13@e-today.co.kr

이와 함께 포인트 적립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원은 포인트 결제 부분에서도 본인인증에 대한 보안상 문제가 없어야 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하나SK카드 관계자는 "일단 3월말까지 서명이나 패스워드 입력 방식의 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지만 정확한 발매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김현희·김현정 기자 maru13@e-today.co.kr

삼성생명 이르면 5월12일 상장

이수창 사장 내달 해외로드쇼...삼성차 부채 해결 관심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된 삼성생명은 5월12일을 D-데이로 잡고 기업공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5월 12일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된 삼성생명은 거래소에서 상장 통과 공문이 오는대로 증권신고서 준비과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내외 기업설명회(IR)과 공모가 결정 등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 상장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증권신고서와 해외 IR팀을 이미 준비시켜 놓은 상태인 만큼 향후 일정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로드쇼의 경우 해외투자기관들을 상대로 이수창 사장이

직접 나서 공모를 벌일 예정이다. 이수창 사장은 다음달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안정적인 공모가를 확보해 지난 11년간에 걸친 삼성자동차 부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삼성차 채권단의 5조원 규모 소송과 관련 2008년 1월 1삼법원은 삼성생명 상장 불발로 채권단이 현금화하지 못한 233만4045주를 삼성그룹이 처분해 임금 1조6338억원 및 연 6%의 연체이자(6861억원)를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

결대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상장 공모 때 채권단 보유주식의 구주 매출을 통해 원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모가격이 10만원이 넘어야 한다. 삼성그룹 이견희 전 회장이 20.76%의 지분을 보유 최대 주주로 있으며 삼성에버랜드(19.34%) 신세계(13.57%)와 함께 특수관계인 8명이 45.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의 공모금액을 적게는 4조원, 많게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신한은행 新성장동력 글로벌서 찾았다

일본·베트남서 '금융한류' 바람...미국·캐나다 현지인 영업도 성공



"현지금융기관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부 관리체제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것이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 최근 글로벌 은행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말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전세계 14개국에 지점 6개, 현지법인 10개, 현지법인 지점 43개, 대표사무소 2개 등 총 48개 네트워크 보유 하고 있다. 이중 34개의 해외 점포 중 20개가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 몰려 있다. 아시아 진출을 발판으로 삼아 유럽, 미국까지 확장을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신한은행의 가장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단연 일본이다.



신한은행은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을 통해 설립 6개월만에 3조원의 예금을 유치했다

현지법인인 SBJ(신한뱅크재팬) 일본 도쿄에서는 작년 9월 문을 연지 한 달 만에 무려 200명이 넘는 예금고객이 찾아왔다. 또 이 은행은 6개월 만인 3월 현재 3만여 고객으로부터 2300억엔(300조)의 예금을 유치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1인당 예금은 우리 돈 1억원에 달한다.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3개 도시에서 영업을 시작한 SBJ은행은 여세를 몰아 이후 우에하마치·우에노·요코하마 지점을 잇따라 개설했다. 특히 2009년 11월에 개점한 우에하마치 지점은 아예 일본 현지인을 지점장으로 채용해 일본인 고객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교포은행 인식 불식

신한은행의 일본진출 성공은 국내 은행권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한국은행=교포은행이라는 인식을 바꿔 놓은 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가장 힘든 것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꼽는다.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주로 현지 한국인 혹은 교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 현지인들이 규모도 작고 유명하지도 않은 외국 은행 지점에 돈을 갖다 맡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중



이백순 행장(우측)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100%단독 출자한 '신한베트남은행' 개업을 기념해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이나 베트남, 일본, 독일 등 아시아 및 유럽국가의 일부 은행들이 한국에 진출했지만, 거의 존재조차도 모른다.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부분 이런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일본에 진출해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

현지인 대상 금융상품 출시

신한은행은 이러한 현지고객 영업을 미국과 캐나다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캐나다 현지법인과 업무연계를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영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면서 현지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캐나다 현지전용 상품인 '고국방문 건강저축'을 출시한 것. 또 미국 지역 자회사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을 통해 현지인 대상 금융상품과 예금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해 7월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 교민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금융시장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베트남에서의 사업능력과 시장 선점효과를 바탕으로 현지화와 차별화 전략을 통해 베트남 현지 소비금융 최강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는 중국현지법인 글로벌신시스템 '아이테르(AITHER)'를 구축해 본격 가동 중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의 계정계 업무는 물론 경영정보 및 비대면 채널 등대고객 리테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감독당국의 비준절차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터넷뱅킹, ATM, 직불카드 등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전기차도 보험 가입하세요

LIG손보 전용상품 판매...매직카 서비스도

LIG손해보험은 전기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담보하는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 보험상품인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 판매에 나섰다.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약 가입을 통해 LIG손해보험의 자동차 긴급출동서

비스인 'LIG매직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방전사고 대비한 차량 견인 서비스 등 전기자동차 운행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해 총 10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자동차의 용도별 사용에 따라 도로주행용, 구내용, 골목장용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로주행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경차와 동일한 차량가액 적용시 약 3%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렉서스ES 自車보험료 36.9%인상

도요타, 렉서스ES 등 일부 수입차의 자차(自車)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대폭 오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차량 모델별 등급변경에 따른 자차 보험료 변동 내역을 보면 도요타 렉서스ES의 자차 보험료가 36.9% 오르며 혼다 에코드와 BMW 3시리즈는 각각

21.2%, 5.0%인상된다. 국산차로는 카니발과 다이너스티가 최대 23%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 오퍼러스(9.8%), 아반테 신흥(6.2%), 에쿠스(6.1%), 그랜저(1.9%) 등이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제네시스(-32.9%), SM7(-22.5%), 아반테DX(-9.9%), 뉴EF쏘나타(-5.5%), 뉴아반테DX(-3.7%),

SM5(-1.2%), EF쏘나타(-0.8%) 등은 내려간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차량들의 등급이 대거 떨어졌기 때문이다. 새 등급 체계는 오는 4월 신규 계약이나 계약 갱신부터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가 자체 손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조정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나는 남한에도 행복적 없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하지만 한번쯤 꼭! 해보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삼성카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Why not?

www.samsungcard.co.kr 문의 1588-8700

KCSI, KNSP, KSQI, 삼성카드 고객만족 7개 부문 수상! 다른 차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카드 SAMSUNG

02-322-6144 / 02-325-6143 / www.muhan-book.co.kr
muhanbook7@naver.com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정주영 이병철

2010년 호암 100주년 기념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박상하 지음 | 신국판 | 값 11,500원

이기는 정주영 지지않는 이병철

박상하 지음 | 신국판 변형 | 11,000원

청소년판 출시!



박상하 지음 | 신국판 | 값 11,500원

현대와 삼성을 만든 두 리더의 생존전략

명확한 비전과 불굴의 용기, 위기에 대한 탁월한 판단과 대처 능력, 유연한 사고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실천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정주영과 이병철. 위기의 시대,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한번뿐인 인생, 성공적인 삶을 위한 명쾌한 처방

다시 시작하는 힘 결단



대한민국 대표 독서토론폰임 리더스클럽회장 유길문
248페이지 | 12,000원



THE POWER OF DECISIONS

내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에너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결단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

이 책을 통해 '결단'이라는 인생 최대의 히든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강한구(구슬 뛰는 삶)의 저자
인주를 경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추천한다. -김영식(100미터만 더 뛰어야)의 저자
우리 시대 리더들에게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이끈 특별한 성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김성오(육일막 갑사)의 저자

워렌 버핏의 두 개의 지갑

서정병 지음 | 신국판 | 값 12,500원
워렌 버핏, 대한민국 재테크의 원칙을 말한다!




365 절되는 나를 만드는 위대한 한마디

김연우 지음 | 양장 | 값 10,000원
우리 시대의 멘토들은 세상에 부딪쳐 넘어질 때마다 이 한마디의 말을 던지고 일어섰다!



살짝 미쳐가는 세상에서 완전 행복해지는 심리학

박지숙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2,000원
사람과 사람의 교감을 바탕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박지숙 소장 노후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이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경규 국민 MC, 개그맨



질문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김연우 지음 | 신국판 | 값 12,000원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 이지성 강력 추천!
세상과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2010년, 당신의 삶이 치유됩니다!

참된 진리라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우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금강경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 | 양장 | 값 25,000원 | 보급판 15,500원
네티즌들이 극찬한 바로 그 책!
역사 속에서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단연코 인류의 정신사에 있어 최고의 정점에서 있는 몇 안 되는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를 중심 잡힌 온전한 삶으로 이끈다.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 | 신국판 | 값 10,000원
반야심경에 담긴 삶의 지혜
우리가 그동안 찾고 있었던, 그리고 인류가 오랫동안 애써 찾아왔던 참 진리에 대한 모든 답변을 시원스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 | 신국판 | 값 13,500원
광대한 진리의 보고, 그 속에서 뽑아낸 선정(禪定)의 지혜
짧지만 강한 여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단 한 줄의 법문! 문득 퍼본 법문에서 무한한 깊이 의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펀드매니저 인버스ETF ‘열공’

지수하락시 선물거래로 수익률 보전 가능...거래량 급증세

국내 유일 인버스ETF인 KODEX 인버스가 펀드매니저들의 펀드 헤지(Hedge)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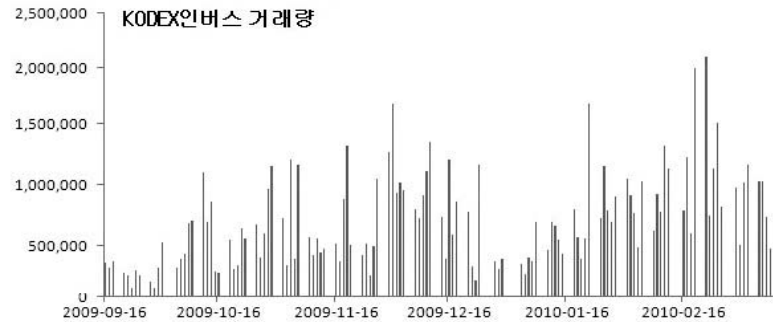
올해 들어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일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KODEX인버스를 편입해 상대적으로 좋은 펀드 수익률을 기록하자 여타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KODEX인버스는 인버스ETF의 한 종류로 지난해 9월 16일 삼성투신운용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기초 자산인 코스피 선물지수(F-KOSPI200)로 선물을 매도하는 효과를 가진 상품으로 지수 하락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 순위에서 상위 5위안에 위치하며 지속적으로 랭크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엔 1320만4154주로 전월 대비 2월엔 1991만2150주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2월이 상대적으로 거래일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월 중순 이후 조정 양상을 보이자 일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KODEX인버스를



편입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KODEX인버스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월21일까지 투신권의 평균 일일 거래량이 수천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1월말부터는 10만주 이상에서 많게는 40만주 가까운 순매매 기록을 보이고 있다. 전체 기관투자자 중 투신의 비율도 압도적이고, 순매매 동향을 바탕으로 투신의 거래량을 추정해 본 결과 지난해 10월 1만8166주에 불과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최근 업계 펀드매니저들이 인버스ETF를 통해 펀드 수익률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버스ETF 상품 구조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전권 연구원은 "일부 펀드의 경우엔 선물이라는 파생상품 편입에 문제가 되는 펀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영희 기자
chaosbul@e-today.co.kr

강남부자 미국식 ‘투자클럽’ 결성

공부·투자·친목 ‘세마리’ 토끼몰이...가입비 500만원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투자클럽이 국내에도 등장했다.

지난 4일 창립된 SI클럽(Investment study)은 10명의 정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미국식 투자클럽이다.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몇 십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씩 부동산,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가들로 이미 제도 금융권에서 간접적으로 다양한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기존 PB센터 등 금융권에서 VIP대접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는 이들이 투자클럽을 결성한 이유는 간단하다.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것.

은행, 증권사 등에서 투자지식을 얻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자신이 직접 투자연구를 통해 대안상품을 발굴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다. 큰 손들의 모임인 만큼 클럽 정회원의 입회비는 500만원으로 진입장벽을 높였다.

이에 사이클 포지션에 따른 자산배분전략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채권, MMF 등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아 그 중요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클럽 모임은 투자학술포럼 형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회원들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하면,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회원들이 이들의 결과물을 수정, 보완해주는 형식이다. 이때 특별회원들과 함께 가상 포트폴리오의 시뮬레이션 검증도 실시한다.

특별회원들은 회장을 맡은 강창희 미래에셋 그룹 부회장을

중심으로, 전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리서치최드를 맡았던 강관우 이블리서치 대표와 전 현대투신, 푸르덴셜투신 주식총괄 펀드매니저를 역임했던 조세훈 이블렛 대표, 신홍제 GNP부동산파트너스 대표, 김석진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과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회원들은 팀장을 중심으로 매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인덱스를 추적해 다각화된 방법으로 사이클 포지션을 연구한다. 현재 사이클 포지션을 분석하고 자산배분전략을 세워, 타이밍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모임에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인 셈이다.

오희나 기자
hnh@etoday.kr

거래소, HTS 장애 손해배상 조정 결정

증권 홈페이지시스템(HTS)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가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HTS전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는 옵션만기일에 A증권회사 HTS가 장애로 4분 동안 전선장애로 해당호가 주문이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투자자가 제출한 주문종류 옵션 110계약 주문이 당시 체결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의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에 따른 손실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e-today.co.kr

테마에 발만 담귀도 주가 급등 ‘췌주의’

관련 매출 비중 적고 기술력 검증도 안된 기업 수두룩

최근 증시가 지루한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테마에 편승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테마에 슬쩍 발만 담근 기업들의 대부분은 테마 관련 사업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 비해 미미하고 기술력 검증도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최근 나홀로 주식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위치정보서비스(LBS)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전기차와 LBS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낸 이유는 정부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하거나 의무화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테마주들의 상승세를 이끈 종목으로는 AD모터스, 넥스온 테크, 삼양옵틱스, 넥센테크, 액류리스, 코디에스, S&T모터스, 에스씨디 등이다. 이들 기업 중 넥센테크의 경우 아직 전기차 관련 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매출이 없으며 오히려 르노삼성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은 꾸준히 한 상태이지만 매출이 나온 적도 없으며 지난해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전년대비 17.2% 감소했다. 하지만 넥센테크의 주가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25% 가량 급등했다.

에스씨디도 마찬가지로 아직 확실한 전기차 관련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보통주에 대한 육성하거나 의무화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LBS 관련 테마주들도 전기차 테마주들과 상황은 마찬가지다. LBS 관련주로 분류되는 선도소프트, 엑스로드, 포인티아이, 자티전자 등은 최근 상한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IT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LBS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속속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LBS 실적은 미미한 정도이며 최근 재무상태 또한 좋지 못하다.

엑스로드도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82억 원, 147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포인티아이 역시 지난해 영업손실을 21억원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동양증권증권 이상운 연구원은 "LBS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지만 일부의 핵심 열쇠는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다"며 "LBS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ts0118@etoday.kr

주간 IPO/장외주식시장

3월 둘째 주 코스피지수(1662.74pt)는 특별한 움직임이 1660선 초반에서 한주를 마쳤다. 한주간 장외 종목들은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미래에셋생명(+1.19%)이 주후반 큰폭으로 상승하며 1만2000원대 재진입에 성공했고, 금호생명도 1.57% 상승하며 645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청주중목인 삼성생명(-1.65%) 하락하며 11만9500원을 기록했다. 서울통신기술(-1.04%)과 엘지씨엔에스

(-2.08%)는 각각 4만7500원, 2만3500원으로 IT계열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SDS는 7만8500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금융주에서는 1만4000원대에서 시작한 한국증권금융(-14.63%)이 한주간 내내 하락하며 1만2000원 초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리딩투자증권(+1.30%)과 하이투자증권(+9.51%)이 각각 780원, 1900원으로 상승했고, 솔로몬투자증권은 5000원에서 가격변동이 없었다.

범현대계열주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현대삼호중공업(+1.28%) 3만9500원, 현대아산(+2.18%) 1만8750원, 현대카드(+3.17%) 1만625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반면, 현대위아와 현대택배, 현대홈쇼핑은 각각 0.69%, 0.74%, 1.09% 하락했고, 현대캐피탈은 4만2000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밖에, 코리아로터리서비스(+2.04%)와 KT와 위텔(+5.49%), 더존다스(+0.48%), 심포니에너지(+1.27%), 알티베이스(+2.90%), 윈디소프트(+4.82%)등 장외종목들은 한주간 상승 마감했다. 기업공개(IPO) 관련주에서는 오는 17일~18일 양일간 공모 마감했다. 반면, 현대위아와 현대택배, 현대홈쇼핑은 각각 0.69%, 0.74%, 1.09% 하락했고, 현대캐피탈은 4만2000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장외시세표

기간 : 2010.3.5~2010.3.12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종목	2010.3.5			2010.3.12			주간동락폭	등락율	계좌이체
	말자	사자	기준가	말자	사자	기준가			
금호생명	6500	6200	6350	6500	6400	6450	100	1.57%	가능
미래에셋생명	12800	12500	12650	13000	12600	12800	150	1.19%	가능
삼성광주전자	19800	19500	19650	20500	18000	19250	-400	-2.04%	가능
삼성SDSC	79000	78000	78500	79000	78000	78500	0	0.00%	가능
서울통신기술C	49000	47000	48000	48000	47000	47500	-500	-1.04%	가능
엘지씨엔에스C	25000	23000	24000	24000	23000	23500	-500	-2.08%	가능
케이티스	43000	42500	42750	41000	40000	40500	-2250	-5.26%	가능
케이티씨에스	31200	30000	30600	30000	29000	29500	-1100	-3.59%	가능
코리아로터리서비스	13500	11000	12250	14000	11000	12500	250	2.04%	가능
포스코건설	91000	88000	89500	91000	88000	89500	0	0.00%	가능
한국디지털위성방송E	19400	19200	19300	19300	19000	19150	-150	-0.78%	가능
현대삼호중공업	41000	37000	39000	42000	37000	39500	500	1.28%	가능
현대아산	19700	17000	18350	19500	18000	18750	400	2.18%	가능
현대위아	37000	35000	36000	37000	34500	35750	-250	-0.69%	가능
현대카드	16500	15000	15750	17000	15500	16250	500	3.17%	가능
현대캐피탈	46000	38000	42000	46000	38000	42000	0	0.00%	가능
현대택배	7000	6600	6800	6900	6600	6750	-50	-0.74%	가능
힐라코리아	31000	29000	30000	30500	29000	29750	-250	-0.83%	가능
KT파워텔	12000	11700	11850	13000	12000	12500	650	5.49%	가능
SK건설	47000	43000	45000	45000	44500	44750	-250	-0.56%	가능
대한생명	8330	8250	8290	8850	8800	8825	535	6.45%	공모완료
덕신하우징C	6600	6000	6300	6300	5600	5950	-350	-5.56%	심사청구
디지털리아C	10000	9500	9750	13000	12500	12750	3000	30.77%	공모예정
마이디아이티C	16000	14000	15000	13500	12000	12750	-2250	-15.00%	승인
만도	42000	40000	41000	42000	40000	41000	0	0.00%	심사청구
삼성생명C	123000	120000	121500	121000	118000	119500	-2000	-1.65%	승인
실리콘스카C	72000	61000	66500	72000	61000	66500	0	0.00%	심사청구
원익머트리얼즈C	15000	14000	14500	15000	14000	14500	0	0.00%	심사청구
이연제약C	16000	12700	14350	15000	12700	13850	-500	-3.48%	승인
인피니트헬스케어C	5200	4500	4850	5200	4500	4850	0	0.00%	심사청구
현대PwCSPACA	6400	6100	6250	6300	6050	6175	-75	-1.20%	공모완료
환경철강공업	24000	23000	23500	24000	23000	23500	0	0.00%	심사청구



미래에셋 ‘인디펜던스주식형펀드’

설정 9년 누적수익률 638%...투자전략위 중심으로 운용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 펀드는 지난 2001년 2월14일 국내 최초의 공모 개방형 뮤추얼펀드로 설정돼 9년 동안 우수한 운용성과로 미래에셋을 대표하는 주식형펀드로 성장해 왔다.

이 펀드는 2010년 3월10일 기준, 누적수익률 638.16%, 5년 수익률 111.22%, 3년 수익률 33.70%로 거의 매년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주식형 펀드인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의 성과는 향후 펀드의 대형화, 장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국내

펀드업계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펀드의 높은 수익률 비결은 공동 운용방식에 의한 체계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적 운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상설돼 전략적 자산배분 활동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또한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 내부에 리서치본부와 연구개발부, 리서치본부와 운용본부간의 유기적 협의를 하는 등 리서치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화된 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펀드는 내재가치 중시는 물론 철저한 위험관리 등 '기본'을 지키는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거시경제 지표 및 세계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철저한 현장 탐방을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개별 종목 발굴에 힘쓰는 운용방식으로 우수한 운용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기획부 앞장선 본부장은 "투자전략위원회 중심의 펀드 운용을 통해 펀드 운용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운용 성과 달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희 기자



코스닥기업 요직 대기업 인사 수두룩

납품 업체 등 관련 사업분야 기업 출신 임원 영입 러시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입 이사나 사외이사, 감사 등의 요직에 거래처 대기업 출신 인사나 관련 업종에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인사들을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제출한 기업들 중 이들 경우에 해당하는 주요 상장사로는 크린앤사이언스와 모빌리언스, 하나미이크론, 크리스탈지노믹스, 삼화네트웍스, 씨앤에스, 대아티아이, 에이디피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됐다.

이들 상장사들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와 자동차 전자장비, 방송, 통신, LCD 장비, 의약, 생활가전(에어컨 필터) 등 그 범위가 상당했다.

또한 이들 회사에서 신규 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영입하려는 인사들의 과거 이력을 살펴

보면 대다수가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사업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린앤사이언스는 지난 4월 주주총회소집결의 안건으로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부 상무 출신의 심수철씨를 신규 사외이사 선임 대상자로 올렸다. 삼성전자는 생활가전 사업부에는 어진진도 포함돼 있다.

모빌리언스는 지난 3월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에서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대상자로 KT 기획조정실장과 KTH 사장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내걸었다.

모빌리언스는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를 구매할 경우에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지불업체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KT,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데이콤 등의 기동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다.

하나미이크론은 반도체 조립 및

TEST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이며 지난 2005년부터는 일본, 미국, 대만을 중심으로 시스템 인 패키지(System in Package)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나미이크론은 지난 5월 주주총회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신규 감사선임을 포함시켰으며, 그 대상자로 삼성전자 LCD총괄 IT디스플레이센터장 및 삼성로닝 BU사업부장, 삼성전자 LCD총괄 부사장 출신의 이지삼씨를 후보로 내세웠다. 또한 이 회사의 최창호 대표를 비롯해 주요 임원 대다수가 삼성 전자 출신이다.

모요타의 리콜사태 이후 차량용 반도체 제조 사업이 부각되며 코스닥시장에서 한 차례 돌풍을 일으킨 씨앤에스는 주문형반도체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5일 주주총회소집결의에서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 부회장 출신의 김동진씨를 신규 이사 선임 대상으로 올렸다. 씨앤에스는 지난 1월에도 현대차와 64억원 규모의 비메모리 반도체 국산화 개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월초에는 현대모비스로의 피인수설에 급급하기도 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앞선수익률 + 복리효과 !!
CMA SURPRICE [MMW형]
가입하고 선물받자~!
하나미투증권

하나미투증권, 씨프라이스 CMA 이벤트 하나미투증권은 4월30일까지 MMW(머니마켓형) CMA 신규 가입고객 등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MMW형 씨프라이스 CMA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백억 규모 SPAC 설립...6월 공모

부국증권 융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상무 등이 임원진을 구성한다.

또한 정영훈 신용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직을 수행하며 김창현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장(전 공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장)과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교수(자본시장법, 기업인수합병실무 담당)가 사외이사를 맡는다.

기동호 부국증권 IB사업부장은 "스몰캡 M&A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뛰어난 성장동력을 지닌 미래의 스타 투자를 발굴해 합병할 것"이라며 "주요가치창출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종민 기자 kjm@e-today.co.kr

채권영업, 증권사 '블루오션' 되나

전문가들, '과열로 레드오션 전략 가능성' 지적

최근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한 '채권' 영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증권사들은 부동자금에 예금으로만 불리는 등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자 채권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채권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의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만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상태며, 국내 투자자들은 개인 자산 투자처로 채권시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상품 운용을 총괄하는 CM(Channel Marketing)사업부 내에 FICC(Fixed Income, Currency & Commodity)팀을 신설했다.

FICC팀은 채권을 비롯해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이색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대증권도 올 들어 채권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투자은행(IB)사업 및 자산관리 영업과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채권영업부, 채권운용부, FICC파생부 3개부서를 이루어진 채권사업부를 신설했다.

이재현·최영희 기자 nls0118@etoday.kr

포스틸, 139억 적자내고 27억 배당

포스코 계열사 포스틸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모기업에 현금배당을 위해 사업확장적립금을 무리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포스틸은 최근 2009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현금배당액 27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이 배당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50%가 늘어난 액수다.

현재 포스코와 포항공과대학교가 포스틸에 대해 각각 95.3%와 4.7%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포스틸은 지난해 75억원의 영업이익과 516억원에 이르는 영업외 수익을 기록했지만 766억원을 상회하는 영업외비용 등의 문제로 13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현영섭기자 hyson0214@e-today.co.kr

"5년내 '톱 7' 진입하겠다"

김호중 동부증권 사장, 유상증자·M&A 검토



김호중 동부증권 사장

"올해부터는 각 사업부문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향후 5년 이내에 증권업 7권을 달성하겠다"는 김 사장은 "5년내 '톱 7'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김호중 사장은 지난 3년간 동부증권이 2배로 성장함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세진이

익 2000억원을 달성해 대형사 계열에 진입하고 그룹사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는 "지난 2007년 취임 당시 2000억원에 못 미쳤던 자기자본이 지난해 말 5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3분기(2009년 3분기 40억원)를 시현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인 총 55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3~4년 후에는 세진이 이익 2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대형사 계열에 진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 7 증권사에 진입하기 위해 유상증자 및 인수합병(M&A) 등의 몸집부리기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자본금이 5000억원 가량으로 올해는 증자계획이 없지만, 필요시 점이라고 생각될 때 유상증자

와 M&A 등의 몸집 부리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동부그룹 측과도 협의를 하기위해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논의 위해 동부증권은 현재 리테일 부문에서는 올해 10개의 점포를 추가로 확충하고 신개념 제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설당 DLS 출시와 도요타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전략적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트레이드 사업 부문을 앞으로도 시장에서 점유를 선도해 나가는 상품을 꾸준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IB사업부문은 동부증권의 전통적인 강점분야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분야를 중심으로 재무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nls0118@etoday.kr

녹색금융 추진책 운영 대우증권

대우증권은 녹색금융 분야에서 신성장 사업을 찾고 녹색경영을 실천하고자 '녹색금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색금융추진위원회'는 대우증권의 영업 및 관리 담당 주요 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녹색펀드,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금융과 관련된 신성장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우증권은 우선 국내외 풍력사업 참여, LED 등 대체에너지 기업 투자, 국내의 녹색기업 IPO, 녹색금융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러한 녹색금융 사업모델을 조기에 구체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전기차 시대...관련주도 달리나

경쟁력 원천은 정부지원...해외 투자자도 관심
기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KEC, KEC홀딩스, 셋방전자, 삼양옵틱스, 넥센테크, 지앤디엔텍, S&T모터스, 액유티스, 코디에스, 액유티스, 토카이옵틱스 등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된 점과 지식경제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관련 산업이 초기 단계이지만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같은 소식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SDI, LG화학을 비롯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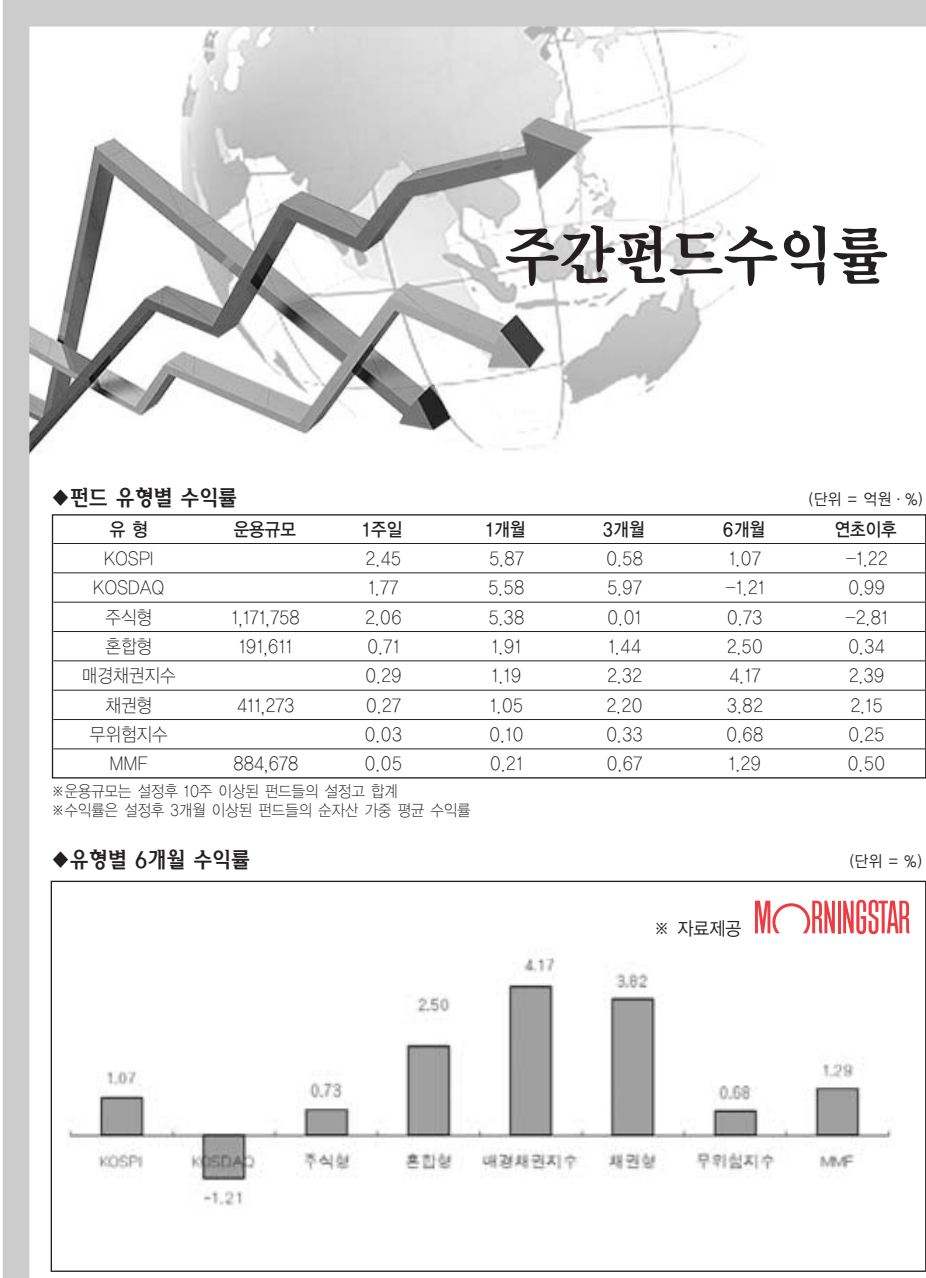
기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KEC, KEC홀딩스, 셋방전자, 삼양옵틱스, 넥센테크, 지앤디엔텍, S&T모터스, 액유티스, 코디에스, 액유티스, 토카이옵틱스 등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전기차산업이라는 게임이 시작됐지만 아직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기차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정책, 시장규모 증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민품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전기차 관련 산업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서 전기차도 흥행을 거둘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놨다.

이승환·이재현기자 lsh@e-today.co.kr



◆펀드 유형별 수익률 - 주식형 (단위 =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배타지수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5-07-17	351	1.44	4.70	1.25	6.04	0.04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5-07-17	430	2.00	5.47	1.18	5.78	0.7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5-03-24	1,059	2.63	5.70	3.99	9.27	19.90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5-07-17	212	1.29	4.26	1.22	6.02	0.80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1-05-02	129	1.15	5.83	1.50	7.75	13.2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1-05-02	147	1.12	5.72	4.72	4.99	10.84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1-03-13	149	1.77	5.75	4.41	6.71	0.9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1-03-13	149	1.77	5.75	4.41	6.71	0.98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0-11-01	111	1.81	7.55	2.69	1.94	89.12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6-08-22	181	1.95	7.31	3.05	1.30	69.05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6-08-22	195	2.50	5.80	2.95	5.20	69.02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6-09-04	199	2.29	6.68	4.92	4.19	68.7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6-08-18	679	2.04	6.32	3.82	4.32	68.72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3-12-31	294	2.54	3.75	5.84	8.45	68.6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1999-06-23	675	2.49	3.61	5.79	8.35	68.50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5-01-18	240	1.72	5.14	0.95	4.46	68.4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3-01-03	405	1.32	5.04	1.10	4.51	68.1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6-08-22	552	1.83	5.74	2.35	4.76	67.8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6-08-18	648	2.03	6.26	3.73	3.90	67.44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5-10-17	525	1.79	7.48	2.55	1.55	67.24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7-10-17	608	1.79	7.46	2.49	1.49	67.24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5-12-20	205	1.00	6.14	-0.04	3.74	67.22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4-07-20	177	1.79	7.43	2.57	1.52	67.1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1999-06-23	281	2.48	3.55	5.57	7.90	67.14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3-03-12	133	1.87	6.11	0.17	4.07	66.9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3-03-12	133	1.87	6.11	0.17	4.07	66.9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2-01-29	97	1.47	3.67	6.05	9.06	66.9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4-07-06	1,901	1.78	7.45	2.57	1.50	66.77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4-11-01	29,638	1.78	7.43	2.28	1.10	66.5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8-10-01	163	2.58	4.99	4.12	5.84	66.57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5-09-28	187	2.65	5.88	2.10	3.78	66.5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2-02-05	354	2.31	6.15	-0.20	1.78	66.47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7-10-17	4,637	1.78	7.43	2.41	1.26	66.38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7-05-08	163	2.71	5.76	1.13	2.52	66.28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4-07-20	1,919	1.77	7.38	2.39	1.18	66.0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3-01-03	2,384	2.34	5.72	2.46	2.46	66.0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7-07-10	213	2.16	5.33	2.44	3.24	65.9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7-05-08	138	2.43	5.43	2.43	2.43	65.8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5-10-13	188	2.42	6.49	0.97	5.57	65.86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6-09-11	231	2.34	6.20	-0.67	1.12	65.75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7-05-08	138	2.43	5.43	2.43	2.43	65.7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5-12-20	12,430	1.99	6.07	-0.30	3.10	65.54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5-12-20	204	1.98	6.04	-0.30	3.10	65.52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5-12-20	204	1.98	6.04	-0.30	3.10	65.52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5-10-04	390	1.49	4.44	4.51	6.10	65.26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7-12-31	95	2.57	4.28	2.80	4.13	65.20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6-09-11	276	2.35	5.98	-0.48	1.51	65.1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2-01-29	97	1.47	3.67	6.05	9.06	65.9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4-07-06	1,901	1.78	7.45	2.57	1.50	66.77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4-11-01	29,638	1.78	7.43	2.28	1.10	66.5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8-10-01	163	2.58	4.99	4.12	5.84	66.57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5-09-28	187	2.65	5.88	2.10	3.78	66.5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2-02-05	354	2.31	6.15	-0.20	1.78	66.47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7-10-17	4,637	1.78	7.43	2.41	1.26	66.38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7-05-08	163	2.71	5.76	1.13	2.52	66.28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4-07-20	1,919	1.77	7.38	2.39	1.18	66.0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3-01-03	2,384	2.34	5.72	2.46	2.46	66.0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7-07-10	213	2.16	5.33	2.44	3.24	65.91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7-05-08	138	2.43	5.43	2.43	2.43	65.89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5-10-13	188	2.42	6.49	0.97	5.57	65.86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C	미래에셋증권	2006-09-11	231	2.34	6.20	-0.67	1.12	65.75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B	미래에셋증권	2007-05-08	138	2.43	5.43	2.43	2.43	65.73
미래에셋글로벌투자증권(주식형) A	미래에셋증권	2005-12-20	12,430	1.99	6.07			

LG, 차세대 성장엔진 4대축 확정

태양전지·LED·총합공조·차세대전지에 3조7000억 투자...원천기술 확보

태양전지 • LG화학, 폴리실리콘 등 핵심소재 개발 • LG전자-LG디스플레이, 고효율 모듈 개발	차세대조명 • LG이노텍, 고효율 LED모듈 개발 • LG화학, OLED조명용 소재 개발 • LG전자, 조명시스템 개발
총합공조 • LG전자,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조기술 개발 • LG CNS, 대형빌딩용 공조설비 토털 제어시스템 개발	차세대전지 • LG화학, 저가격·고용량의 전극 소재 개발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수명 증대 기술 연구

LG가 올해 △태양전지 △차세대 조명 △총합공조 △차세대전지 등 차세대 성장엔진 4개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에 R&D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LG는 10일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구본무 LG 회장, 강유식(부) LG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남용 LG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상철 통합L&E 그룹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 및 계열사 CEO, CTO, 연구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0년 '연구개발성과 보고회'에서 차세대 성장엔진 4개 분야의 R&D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전지의 경우 LG화학은 폴리실리콘 등 핵심소재 개발에, LG전자는 셀 효율 및 생산수율 개선에 각각 R&D를 집중키로 했다. 또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성이 높은 박막형 방식의 태양전지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LG전자는 박막형 태양전지 연구와 별도로 이미 올 초 52만장 규모의 120MW급 실리콘을 이용한 결정형 방식의 태양전지 생산라인 가동을 본격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1개 라인을 추가로 가동해 모두 240MW의 태양전지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차세대조명에서는 LED조명의 제품 라인업 강화 및 LED칩 등의 핵심부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LED에 이은 새로운 조명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OLED조명의 상용화에 대응한 소재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LED부품은 LG이노텍이, 조명시스템은 LG전자가, OLED조명용 소

재 개발은 LG화학이 추진한다.

총합공조에서는 LG전자가 에어컨-홈네트워킹-빌딩관리시스템 등을 연결해 '2012년 글로벌 톱 총합공조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 하에 올해에는 대형빌딩 공조시장 진입을 위한 냉각기 고효율화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조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차세대전지분야는 LG화학이 휴대폰 및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지는 저가격·고용량의 전극 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시장 장을 리드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R&D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날 연구개발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구본무 회장은 "미래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LG만의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R&D를 담당하는 임원들은 5년, 10년 이후를 보는 긴 호흡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차세대 경영진들과 함께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기술혁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LG상사, 남미 석유광구 확보 발판

LG상사가 남미지역 자원개발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LG상사는 아르헨티나의 지오파크(GEOPARK)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남미지역 석유광구의 공동인수를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오파크사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사를 둔 석유개발회사다. 현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위치한 총 6개의 탐사 및 생산

광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지오파크사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기술인력과 함께 안정된 광구운영 능력을 지닌 회사"라며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로 남미지역 자원개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3D TV '한·일 쟁탈전' 돌입

삼성·LG전자 '시장 수성'...소니·파나소닉 '자존심 회복'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등 한국과 일본 TV제조사들이 펼치는 3D TV 시장 쟁탈전이 불을 뿜고 있다. 세계 TV 시장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는 3D TV를 통해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일본업체와 세계 1위를 지키려는 국내업체간의 한판승부가 주목된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업체는 삼성전자. 이 회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상설 전시장 삼성 익스피리언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D TV의 글로벌 출시를 선언했다.

지난 달 25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풀HD 3D LED TV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 동남아,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 도 풀HD 3D LED TV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에 따라 3D TV의 초기 전략시장이라 할 수 있는 해외 미디어 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데 성공함으로써, 3D TV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업체에 세계 TV 시장 1.2위를 뺏긴 일본업체 소니와 파나소닉도 3D TV를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심산이다. 소니는 오는 6월 10일 일본에 3D LCD TV '브라비아

1700개의 극장 스크린을 보유,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지 최대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에 따라 3D TV의 초기 전략시장이라 할 수 있는 해외 미디어 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데 성공함으로써, 3D TV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업체에 세계 TV 시장 1.2위를 뺏긴 일본업체 소니와 파나소닉도 3D TV를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심산이다. 소니는 오는 6월 10일 일본에 3D LCD TV '브라비아

LX900' 등 3개 시리즈, 8개 제품을 선보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시다 요시히사 소니 TV사업본부장은 "오는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2500만대의 TV 판매하는 게 목표"라며 "이 중 3D TV는 10%에 해당하는 250만대"라고 밝혔다.

파나소닉도 미국 최대 소매점 '베스트바이'를 통해 3D TV를 판매한다. 내년 3월까지 미국에서만 5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전세계 TV 시장 판도를 바꿔 놓을 양국의 치열한 3D TV 쟁탈전의 결과가 주목된다.

송영록 기자
syr@etoday.kr

중 차세대 LCD 투자 韓·日 배제 가능성

대만 기업 선정 추진...LGD·삼성전자 "경쟁력 변동없다"

중국내 차세대 LCD 라인 투자 기업으로 대만기업들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국내 업계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7~8세대급 대형 LCD생산라인 투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 LCD 생산라인 투자 승인을 신청해 놓은 기업은 한국의 삼성전자(7.5세대)와 LG디스플레이(8세대), 대만의 AUO(7.5세대)와 CMO(7.5세대), 일본의 샤프(8세대) 등 5개 기업이다.

앞서 중국정부가 자국 LCD제조사인 BOE IVO TCL 등 세 곳의 8세대급 LCD 공장 설립을 사실상 승인해 놓은 상태에서, 중국 언론

에서는 한국과 대만, 일본 기업중 2곳 정도가 추가 승인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인관계가 급속히 회복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만의 AUO와 CMO가 유력한 투자승인 대상기업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한 임원은 "두 업체(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가 별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기업들 끌어들이 이유가) 대만 정부를 압박하는 용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밀착감각 각각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8세대와 장수성 수저우에 7.5세대 LCD라인의 합작투자를 밝힌 반면, 대만의 CMO와 AOU는 올해 2월 들어서야 중국내 투자의사를 가시화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결정

정을 본 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중국정부와의 사전 교감에 대한 구심마저 나온다.

대만 기업들이 늦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국내 LCD장비 업체 한 관계자는 "이달 들어 대만쪽에서 대형LCD 장비와 관련된 문의가 늘었다"면서 "중국투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LCD라인 투자승인에서 기술논리 보다 정치논리가 들어간다면 한국기업들이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내 투자 승인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세계 1, 2위의 경쟁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금호 오너일가 분리경영 본격화

박삼구 '금호타이어'·박찬구 '금호석화' 이외 이사 퇴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박찬구 전 화학부부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복귀해 금호석유화학 경영에 완전히 몰입한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 오너일가의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분리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채권단 및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열린 금호그룹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박 명예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의 사내이사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 박 전 회장 역시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사퇴한다.

오는 26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는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 전회장, 박찬법 그룹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그룹 경영전략본부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관리본부장, 류광희 여객본부장이 새로 선임될 전망이다.

또 25일 열린 금호산업 주주에서는 박 명예회장, 박찬구 전 회

장, 신훈 전 건설부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기육 사장 겸 박찬상 금호산업 경영관리본부 부본부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15일 대한통운 주주에서는 박 명예회장과 이국동 전사장, 오남수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사내이사직을 사퇴하고, 기육 사장과 이원태 대한통운 사장, 서재환 대한통운 경영관리본부장이 신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금호타이어 주주에서는 박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와 기육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되고 박 전회장은 사퇴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박 전회장이 경영에 복귀함에 따라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 명예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기육 사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오너일가가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직을 내놓는 것은 채권단과 협의한대로 그룹 분리경영안을 이행하고 책임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황의신 기자
philla@etoday.kr

금호투자협회 심사필제10-495호 (2010.2.2~2010.5.1)



초등학교 입학식날, 아이에게 [자녀사랑CMA] 통장을 선물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동양종합금융증권-자녀사랑CMA-자녀사랑적립식편드

내 아이의 자산관리, 시작이 빠른수록 아이의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자녀사랑 우대수익 안내 (세전/연)
 ■ 자녀사랑 CMA 우대 0.2% / 셋째 자녀부터 추가우대 0.3% (100만원 한도)
 ■ 자녀사랑 적립식펀드 우대 0.3% (월 3만원 이상 자동이체, 3년 이상 약정 시, 100만원 한도) ■ 아래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4.6%까지 수익제곱 (7만원 로부터 6개월간) * 수익률 기준일 : 2010.1.20 기준 (RP형 1월 예치, 총금형 9월 예치) 세전 연 2.6% * 가입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사랑 CMA 한성기 EVENT SEASON 2**
 기간 : 2010.2.1(월)~3.31(수)
 기간 중 자녀사랑 CMA 가입하시고, 자녀사랑 적립식펀드 월 3만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께 6개월간 연 1.5% (세전) 추가우대수익 제공 (전도 10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2600)의 및 홈페이지(www.MyAsset.com) 참조 * 증권형 CMA는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CMA-RP는 RP로 운용되고 RP는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RP수익률은 일일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 * CMA의 투자자산, 수익률 산정방식,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투자자는 예금저축보통예금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당 적립투자증권에 가입하시기 전 반드시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M대우, 시보레 도입 여부 5월 결정



아카몬 사장 “올해 다양한 제품군으로 흑자전환”

는 5월 중순 해당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GM대우차 판매를 담당했던 대우차판매와는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고 지역 총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카몬 사장은 “시보레 브랜드 도입과 관련한 모든 해당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인만큼 노조와 직원 등이 결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브랜드의 병행 사용 방안을 비롯한 시보레 통일 등 많은 방안을 검토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해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GM대우 자동차 판매를 담당해온 대우차 판매의 결별도 공식화 했다. 릭

라벨 부사장은 “대우자판과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며 결별 사실을 확인했다.

답변을 이어간 아카몬 사장 역시 “오랜 시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대우차판매에 대해 심사 숙고해 결정 했다”고 말했다.

이미 영업 현장에서는 대우자판을 대신할 업체로 ‘국내 굴지의 판매·유통회사인 S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몇몇 기업들이 접촉을 해와 검토 중이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GM대우는 지난해 7.9%(11만 4845대)에 머물렀던 내수시장 점유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

해 올 한해 모두 3가지 신차와 내용을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LPG와 가솔린 수동 모델을 발표한 데 이어 곧 준대형 차량과 SUV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사업 강화를 통해 CKD(반조립제품)를 포함한 수출 160만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142만 대였다.

한편, GM대우의 GM내 입지와 현유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을 드러냈다. 아카몬 사장은 “GM대우의 미래는 보장 받고 있다”며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현재 채권단의 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kr

지난해 하반기 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GM대우의 ‘시보레’ 브랜드 교체와 관련해 ‘미크 아카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카몬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보레 브랜드 도입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오

산업계, 온실가스 규제 일원화 요구

시행 시기도 2012년 이후로 유예 요청

산업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온실가스 규제 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 달했다. 또 시행령 시행시기를 올해 4월이 아닌 2012년 1월1일 이후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4차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에 내달 14일 발표하는 녹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관리업체의 설정, 관리 등에 지경부·환경부가 공동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

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에너지는 지경부가 온실가스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이중규제”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원화된 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면 산업과 비산업으로 나눠 관리부처를 지정하고, 기업이 에너지와 온실가스 목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업체 지정에 있어 정부는 관리업체 지정법위반 제시하고, 지정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에게는 목표수립 및 이행 등 관리 효율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회사

또는 사업장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가 공평한 목표 및 이행방법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배출권 할당에 대해 “고려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조기행동에 대한 홍보”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는 기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현재 총량방식으로 국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원단위 방식까지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SK네트웍스, GM대우 총판 딜러십 확보

SK네트웍스-GM대우, 지역 총판 딜러십 체결 임박...토털 카라이프 탄력

SK네트웍스가 GM대우의 지역 총판 딜러십 체결에 성공 다 갔다. 수입차 딜러십을 유지해 왔던 SK네트웍스가 GM대우 딜러십을 확보하게 되면 3대 사업축중 하나인 토털 카라이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업계 한 관계자는 “SK를 비롯한 몇몇 후보군이 GM대우 차 메가 딜러로 물망에 올랐고, SK네트웍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앞서 GM대우 아카몬 사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딜러십 관계를 가져왔던 대우차판매와의

공식 결별을 밝히면서 “국내 굴지의 판매유통회사인 S사와 딜러십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SK측은 GM대우와의 사업 협력 수순을 일찌감치 밟아왔다. 계열사중 하나인 SK엔카가 GM대우의 지역총판제 도입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 부터 GM대우와 중고차 인증사업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SK네트웍스는 크라이슬러를 비롯해 볼보와 재규어 랜드로버 등 수입차 딜러십을 유지해오면서 쌓아 놓은 노하우가 강점이다. GM대우가 판매

확대를 위한 최적의 조합으로 SK네트웍스를 주목하게 된 배경이다.

GM대우와의 협력으로 SK네트웍스의 토털 카라이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SK네트웍스가 GM대우차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토털 카라이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털 카라이프 사업은 주유, 정비, 신차·중고차 렌터카, 보험·리스 등 카라이프와 관련된 전 사업영역을 포괄한 것으로,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말 ‘고객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비전 하에 ‘자원개발, 토털 카라이프, 소비재’ 등 3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세계시장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비중국으로 나누고, 3대 사업에 집중해 2020년까지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1.5조원, 기업 가치 20조원 규모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성·김준형 기자
lazyhand@e-today.co.kr

항공업계, ‘대장아단’ 노선 열망

대한항공-중국, 아시아나-미주 노선망 확대



대한항공은 ‘장거리’, 아시아나항공은 ‘단거리’.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한 이후 20년여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들어갔던 말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런 수식이 유령무실해졌다.

대한항공은 최근 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중거리 노선에 힘을 실어 주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8일부터 시작

되는 하계 기간 중 중국 노선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인천~시안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인천~선양은 주 7회에서 주 11~14회로 증편한다.

또 인천~칭다오 노선은 7월 2일부터 주 14회에서 16회로 2회를 늘리며, 인천~다롄은 7월 17일부터 주 7회에서 11회로 4회 증편할 계획이다. 지방 노선 중에서는 부산~상하이 노선이 6월 1일부터 주 7회에서 9회로 증편된다.

대한항공은 또 지난달 말부터는

에어마카오가 매일 1회 운항 중인 인천~마카오 노선 공동운항을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지역에서 대한항공의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부터 최신 B777-200ER 1대를 미주 노선에 투입해 인천~시카고, 인천~시애틀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3회로 각각 1회씩 증편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대의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미국 항공사들과의 제휴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스카이팀에서 스타얼라이언스로 옮긴 콘티넨탈항공과 연말부터 국제선 5개 노선 및 미국내 13개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을 실시하고 있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미국 내 노선망을 확보함으로써 영업환경이 훨씬 좋아졌다. 파리와 런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지역에서는 유럽발 수요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황익신 기자
philla@etoday.kr

서울모터쇼, 내년 4월 고양 킨텍스 개최

2011년 4월 1일~10일까지 열흘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 종합전시관에서 개최되는 ‘2011 서울모터쇼’의 주제가 ‘진화,바퀴 위의 녹색혁명(Evolution, Green Revolution on Wheels)’으로 확정 발표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ICA)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서울모

터쇼 조직위원회는 11일 이같은 주제를 공개하고 세부적인 개요를 밝혔다.

2011서울모터쇼의 주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073점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부산대 기계공학부 4학년 왕정호 씨의 응모작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조직위측은 “주제인 ‘진화, 바퀴 위의 녹색혁명’은 자동차에 구현되는 친환경 첨단기술을 통해 인

간과 자연을 보호하는 그린카의 개발트렌드 및 자연과 함께 달리는 자동차의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2011서울모터쇼’는 국내 유일의 OICA(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 공인 국제모터쇼로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특장차, 연료전지, 튜닝카, 타이어, 부품 및 용품 등 자동차 관련 전품목이 전시

돼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와 신기술동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메이커 및 부품업체를 포함해 120여개, 해외업체 80여개 등 총 15개국 2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신차, 컨셉트카 및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 등을 대거 출품하고, 전기자동차 시승행사, UCC 콘테스트, 카드 시승 체험행사, 카 디자인 클래스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kr

이랜드, 대구 동아백화점 인수 MOU 체결

이랜드가 동아백화점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랜드리테일(대표이사 오상훈)은 지난 8일 “38년 역사를 지닌 대구 동아백화점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그룹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핵심 거점 지역이고, 장기적으로도 유통사업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 인수와함께 확인하는 통상적인 양해각서와는 다르며, 실제 계약 체결도 수일 내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인수라는 게 양사의 입장이다. 이랜드가 인수하는 동아백화점은 대구백화점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항도백화점이다. 현재 대구 4곳, 구미 1곳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대형마트(대구, 포항)도 성업 중이다. 백화점

소유의 물류센터와 스포츠센터도 이번 인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거둔 지난해 매출은 4367억 원(백화점 3873억 원, 대형마트 494억 원)이다.

양해각서(MOU)상 인수방식은 동아백화점 소유 기업인 화성산업에서 유통사업부문만 별도로 분리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하게 됨에 따라 지분 변동은 전혀 없다.

조상희 기자

성공학점은행 | baeumland.com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자”

[전체학과 수석합격 / 최고령(75세)합격 / 최연소(19세)합격]



1년만에 독학사 전체학과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1년 3개월만에

91년생 독학사 최연소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35년생 독학사 최고령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최단기 학사 취득의 문이 활짝!!!

- ① 단기간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
- ② 고졸자로 단기에 학위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
- ③ 전문대 졸업자로서 정규대학 학사편입을 원하시는 분
- ④ 서울 중위권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
- ⑤ 독학사, 방송통신대, 정규대를 중도 포기하신 분

156명의 박사 급 이상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 현직 교수들이 퍼낸 교재, 문제집,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직장인이 하루에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전공 (8개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경영학과
- 법학과
- 가정학과
- 컴퓨터학과
- 유아교육학과
- 간호학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 4227호 : 1990. 4. 7)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시험은

1990년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년 동안 단계(3월, 6월, 9월, 11월)에 맞는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학위취득 시 취업, 승진, 대학원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성공학사고시

www.baeumdhs.com

자료 및 상담무료 1644 - 8144

성원, 그다음은...건설사 부도설 난무

도급순위 50~100위권 중 5곳 거론...해당사 "악소문이다" 펴

성원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자 건설업계 제2의 부도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사채시장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 리스트가 돌아 해당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도급순위 50~100위권에 속한 중견 건설사 4~5곳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들은 명동 사채시장이나 하청업체와 직원들의 입을 통해 부도가 압박했다는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고 있다.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설에 휩싸인 A사는 해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위기에 처해있다는 후문이다.

B사의 경우 시장 매각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으며, 매각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B사는 부채를 제외하고 25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며 B건설에서 발행한 어음은 휴지나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C사의 경우 현재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

트 분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명동 사채시장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D사는 해외 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받아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당초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발주처에서는 D기업에게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국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E사의 경우도 회생이 불가능해 퇴출될 것이라는 악소문이 번지고 있다. 주택은행에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자금회수에 나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도설의 배경이다.

이와 관련 일부 기업들은 사실무근이라며 펴져 튀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부도설에 우리 회사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80% 이상 분양계약이 이뤄지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분양했던 사업도 큰 인기를 끌면서 계약률이 높다"며 "왜 이 같은 터무니없는 루머가

흘러나오는지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C사 고위층 관계자 역시 "우리 회사가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명동 사채시장에서 짜라시가 나돌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E기업 A 부장은 "현재 주택은행에서 자금회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경영진에서 다음 주 운용자금 등 34개

의 부의안건을 채권단에 제출한 뒤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사실을 시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채시장에서 나오는 소문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도설에 휩싸인 기업 중 일부는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악의 경우 제2의 성원건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si@etoday.kr

양도세 감면 끝나자 경매 낙찰률 내리막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종료 시점을 전후로 부동산 경매시장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기 한달 전(1월 13일~2월 11일) 서울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45.2%, 낙찰가율 84.7%, 평균응찰자수 6.8명이었으나 종료 후 한달이 된 현재까지(2월 12일~3월 10일) 낙찰률 38.8%, 낙찰가율 83.1%, 평균응찰자수 6.5명으로

경매 3대 지표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감면 혜택 막바지 시기인 2월 둘째주(2월 8일~2월 12일) 낙찰가율은 85.6%였으나 셋째주 84.9%로 소폭 떨어졌으며 넷째주는 83.3%로 낮아졌다. 3월 첫째주는 전보다 더 떨어진 82.7%를 기록했고 둘째주인 현재 81.1%까지 내려가며 줄곧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다. 진행건수 대비 낙찰된 건수를 의미하는 낙찰률도 2월 둘째주 46.7%에서 주간별로 42.9%, 36.9%, 40%, 35.8%를 기록해 감소세가 지속됐다.

김지나 기자
kjin@e-today.co.kr

속초 대포항, 관광레저단지로 탈바꿈

매립지 개발 상반기 착공...테마파크·비즈니스 센터등 건립



동해안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강원도 속초 대포항 매립지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속초시의 관련업계에 따르면 속초 대포항 매립지 개발 프로젝트는 최근 강원도에서 건축허가 사전 승인 등이 이뤄지면서 이르러 상반기 중 착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포항 개발사업은 속초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계획한 프로젝트 중 한곳으로 대포항개발지구 1만6825㎡부지에 동해안의 랜드마크 시설인 호텔 등을 포함한 관광레저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중견 건설사인 HHH와 쓰리케이건설 컨소시엄은 올 상반기 중으로 대포항 방파제에 인접부지 2만 6540㎡(2필지)에 호텔과 콘도 등의 건립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공 시설물은 팔라자노로

이름지어진 지하2층~지상29층과 지하2층~지상24층 높이의 호텔과 리조트 2동의 건축물이다. 여기에는 국제회의 시설, 스파시설, 비즈니스센터, 문화관람시설, 해양테마파크, 휘트니스센터를 비롯해 교육, 연수 시설 등의 관광·레저시설을 결합한 주거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팔라자노 개발 프로젝트 시행을 맡고 있는 쓰리케이건설 김성배 회장은 "속초시 미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은 행운이다"며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만큼 시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도 대포항 매립지 개발 프로젝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관광과 어항기능이 복합된 형태의 관광레저시설 건립으로 대포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 대포항 프

로젝트가 완료되면 시는 관광객 유입증대,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성 속초시장은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자신한다.

채 시장은 "지난해 12월 지구단위 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강원도 건축심의를 통과해 상반기 착공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건축물(가칭 팔라자노)이 착공 되면 대포항 공사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성공 전략과 맞물려 속초의 미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인 쓰리케이건설은 팔라자노 호텔이 들어설 예정 부지 입구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대포항 프로젝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일 기자
hsi@etoday.kr

Interview 채용성 속초시장

"미래형 명품 관광도시 만들겠다"



Q.속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대포항 매립지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포항은 속초시의 상징적인 관광어항이다. 입지여건을 살펴 종합어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속초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Q.속초 미래 발전을 위해 대포항 개발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현재 속초의 지역경제는 쇠퇴일로로 걷고 있다. 장기간 침체된 경기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속초는 어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로인해 단기적인 계획 위주로 행정을 펼쳐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업은 이미 죽어 있고 관광산업 역시 타지의 적극적인 개발로 인해 관광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의 입지적 요건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대포항 매립지 개발 프로젝트다. 속초에는 랜드마크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포항 개발이 마무리되면 속초가 대표적인 관광지로 다시 우뚝서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Q.어민과 상인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어항만을 개발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100년 앞을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시간을 할애했고 그 결과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Q.속초의 대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가.

올해는 속초가 국내를 넘어 환동해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이다. 대포항 프로젝트는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대포항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속초는 '환동해 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Q.대포항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난해 5월에 4개국 함포(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개설에 따른 외국관광객유치 및 물류유통 등 '환 동해시대의 중심도시'의 기초를 다졌다. 척산은천 리조트 개발사업과 속초해수욕장 4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 조성, 영랑호 주변 관광지 조성, 설악동 재개발 사업 등이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LH, 입찰비리 차단 나섰다

참여업체에 심사 과정 CCTV 생중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업체 심사과정을 완전 공개하는 새로운 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해 입찰관련 잡음 제거에 나섰다.

LH는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LH를 위한 입찰심사제도'를 마련·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시행하는 보급리주택 2차 시범지구 설계용역 및 아산배방, 인천청라 U-City 구축사업 심사부터 적용했다. 또 영종지구 자동크린넷 공사 등 모든 터기공사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주요사업인 주택, 산도시, 산업단지 등 각 사업영역별

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기술용역의 업체선정심사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누구나 선정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심사조직, 깨끗한 심사위원, 공정한 심사제도'를 모토로 독자적인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새 입찰심사제도를 보면 우선 심사위원의 자질을 1단계 심사부서, 2단계 인사·감사부서, 3단계 입찰참가업체가 단계별로 검증하도록 했다.

심사부서에서 위원을 비공개로 선발해오던 것을 심사부서가 1차 선정된 위원을 인사부서 및 감사실에서 전문성과 청렴도를 추가로 검증해 부적격자를 배제한 뒤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LH는 입찰참가업체 입회하여 심사위원 선별과정을 공개해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 3~7일 전에 LH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다.

LH는 심사위원 공개와 함께 심사위원 선정방법, 심사진행 절차, 심사방법 등도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한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차원이 아닌 심사위원별 채점결과와 각 항목별 세부 평가 점수까지 모두 발표하게 된다.

여기에 심사실에는 심사장에 심사위원간 담합 등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실 직원과 간부직원들로 구성된 '특별감관단'이 입회하게 되며 심사 전 과정을 CCTV로 중계해 참여업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된다.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www.LH.or.kr

함께할수록,
행복은 올라갑니다

함께할수록 더 따뜻해지는 대한민국
LH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가요, 더 나은 미래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합종연행 활발

건설업체끼리 뭉쳐 경쟁 피하고 사업리스크도 줄여

재개발·재건축시장에 건설사간 짝짓기가 한창이다. 올해 들어 주택분양시장이 어려운데다 수주 경쟁마저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업체에 따르면 오는 5월 시공사 결정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각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수주전에 먼저 뛰어든 4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10대 대형 건설사가 나선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수주전 가열로 이사비용과 이주비(예상치)가 치솟고 있으며 3.3㎡당 건축비도 예상(500만원 내외)보다 낮은 480만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 축소를 위해 몇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대형 단지가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재건축조합에서 정확한 방침이 나온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합의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에서는 짝짓기로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대에 아파트 1547가구를 신축하는 삼정1-2구역 재개발사업(2710억원)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대림산업·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삼성물산·박산건설 컨소시엄, 동부건

설·한신공영 컨소시엄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 2월 초에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안양시 비산2동 사무소주변지구 재건축사업(2000억원)시공권을 따냈다. 1월 말 열린 인천 서구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1820억원)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동부·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밖에 부천 심곡1-3구역 재개발 사업(3500억원)은 삼성·대림 컨소시엄이 공동수주하는 지난 6개월 동안 10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컨소시엄 건설사에 돌아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 불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간 공동 수주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경진기자 skj78@e-today.co.kr

■4월-보금자리 2차 공급, 5월-시프트

새 집 마련 어디가 좋을까

올해는 보급자리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이 주택시장의 뜨거운 이슈다. 보급자리주택과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올 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최장 20년까지 상대적으로 싼값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시프트의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다. 우선 보급자리주택은 유망 물량으로 주목받던 위례신도시 보급자리가 최근 사전계약에 돌입한데 이어 4월 말에는 2차 보급자리 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차 보급자리주택은 총 3만9000여 가구인데, 이 중 공공임대 등을 제외한 분양주택 물량의 80%(1만5000가구 추정)를 내달 말 사전계약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차 보급자리주택 지구는 강남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에서 나온다. 또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지구 등을 포함해 총 6개 지구로 확정됐다. 당초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100% 우선권을 가졌

■2차 보급자리주택 6지구

도시	위치	입지여건
서울	내곡지구 (서초구 내곡, 신원원지, 영곡동)	서울도심 남동쪽 약 15km지점,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2011년 신분당선 철거역 개통
	세곡2지구 (강남구 자곡, 세곡, 수서, 율현동)	서울도심 남동쪽 약 16km지점, 지하철3호선수서역, 서울외곽 고속도로 연계성 양호
경기	부천옥길지구 (부천시 소사구 범박, 옥길, 계수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46호선, 지하철 1호선 등 접근성 양호
	시흥은계지구 (시흥시 은계, 계수, 대수동)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연결
	구리갈매지구 (구리시 갈매동)	서울도심 동북쪽 15km지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전철
	남양주진건지구 (남양주시 진건읍 지곡, 도농동)	서울도심 동북쪽 17km 지점, 중앙선/ 경춘선 복선전철 추진중, 지하철 별내선 계획, 서울외곽고속/동부간선도로 등 접근성 양호

의 커트라인은 청약저축 납입액 1202만원(잔액 74㎡)이었다. 내곡지구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율현동 일원으로 면적은 76만9000㎡에 달한다. 총 5000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중 보급자리는 4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세곡2지구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일원을 아우르며 77만1000㎡ 규모다. 이 지역에 지어질 5000가구 중에 4000가구는 보급자리다. 시흥은계지구는 시흥시 은계동·계수동·대야동 일원 203만1000㎡에 들어선다. 전체 1만2000가구 중 9000가

중 면적이 가장 크다. 이 지역은 총 1만6000가구가 건립되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1만1000가구가 보급자리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청약 때마다 경쟁률이 10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시프트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한 반면, 재건축단지를 일부 매입하는 매입형 시프트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프트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으로 총 1만 304가구를 내놓는다. 올해 첫 시프트가 상암2지구, 은평뉴타운, 왕십리 등 3곳(2014가구)으로 지난 10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오는 5월에도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5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마포, 은평, 강남, 강동 등 서울 곳곳에서 총 8300가구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13만여 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지나 기자 kjn@e-today.co.kr

현대건설, 중앙박물관에 어린이 놀이터 기증

현대건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친환경 어린이 에너지 놀이터'를 기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에 8가지 체험 놀이공간으로 조성한 '친환경 어린이 에너지 놀이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은 “앞으로 단순 일회성인 활동을 벗어나 회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어린이놀이터 기증 사회공헌 활동은 거꾸로 놀이터, 문화가 있는 놀이터라는 특색 있

는 주제로 설계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관과 문화역사 계승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고”

대우건설, 매월 네번째 수요일 '브런치 시네마'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0 프리지오 브런치 시네마를 통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예술영화들을 편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0 프리지오 브런치 시네마” 첫 상영작은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추천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17일 발표된다. 선택된 영화는 스위스 베티나 오베리 감독의 코미디 ‘할머니와 라제리’로 제10회 서울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지오 밸리 홈페이지(valley.prugio.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556-5218~9

강남세곡 보급자리 ‘디자인 명품 단지’ 조성

강남세곡 보급자리주택지구가 ‘디자인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남구 세곡동에 건설하는 보급자리주택에 ‘디자인 명품 주거단지’라는 새로운 주거 개념을 도입한 단지를 조성해 분양(임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현상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국내 지방

건축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오는 22일까지 실시된다. LH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다수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서를 채택한 뒤 이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지명 선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경진기자 skj78@e-today.co.kr

청약시장은 春來不似春

송도 불패신화 깨져...지방도 줄줄이 미달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제외하고는 청약시장이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청약자들이 불리는 서울과 달리 수도권과 지방 청약시장은 좀처럼 냉기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시장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들도 분양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면서 시장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접수를 받은 아파트들 가운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만 1순위에서 마감됐을 뿐,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들은 청약률이 저조하다. 지난달 24일 25일 서울에서 각각 청약 1순위 접수를 진행한 서울 둔촌 프리지오, 후석 한강프리지오는 하루 만에 모집가구 수를 채웠다. 둔촌 프리지오는 재건축 후반양이며 후석 한강프리지오는 올해 첫 후석뉴타운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오롱 건설이 지난 3일 경기도 안양에서 분양한 ‘석수 코오롱하늘채’는 69가구 모집에 8명이 청약접수 해 대거 미달됐다. 경남 진주 가호 ‘에일린의 딸’, 전남 광양 중앙 ‘우림필류’ 등도 분양에 나섰으나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김지나 기자 kjn@e-today.co.kr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증권**

잘 키운 스마트 하나 열 계좌 안 부럽다

더 똑똑해진 Smart CMA!

수익률 높지, 금융거래도 편리하고 자유로워졌지!
당신의 자산, 똑똑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이제 스마트에게 맡기세요

나의 재테크 매니저 - **한화 Smart CMA**

지급결제서비스
CMA
신용카드
대출

최대 연 4.2%(세전) 수익률 제공 _ 기본수익률 2.6% + 우대수익률 1.6%

- 2009.8.4 기준, 세전, 수시 RP형에 한함, 급여이체 50만원 이상시 300만원 한도, 가입후 6개월간
-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정한 약정수익률이 적용되어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Smart펀드 리워드 혜택 _ 주식형 주식투자형에 한함 / 온라인클래스는 제외

- 월 최대 6만원 (연도 3만원 + 주시 3만원) (한화증권CMA신용카드 10만원 이상 사용자)

Smart CMA 신용카드 _ 증권업무는 물론 한화계열사 혜택 제공, 신용카드 할인혜택

출금 수수료 면제 _ 은행/증권 ATM / 월 10회 면제

한화증권 고객센터 1544-8282

- 한화Smart CMA는 RP에 투자되며 예금저축보통예금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시기에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지 제09-5143호 (2009. 11. 27 ~ 2010. 11. 27)

이통시장, 이번엔 안드로이드전쟁

'모바일 오피스' 실현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각축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스마트폰 비중을 확대하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치열한 한관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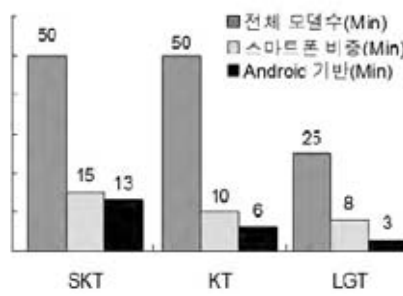
현재 애플 아이폰을 제외한 스마트폰 OS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위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 OS를 안드로이드 체계로 가다를 잡은 상황에서 통신업체는 안드로이드를 위시한 스마트폰 알리기에 한창이다.

15일 SK텔레콤·KT·LG텔레콤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00만명으로, 지난해 50만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당초 올해 말까지 목표했던 30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600만명 이상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통신



산업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진화와 더불어 이를 이용하고 즐기는 소비자도 함께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이통사들의 경쟁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인 셈이다.

국내 이통사들이 안드로이드 OS 마케팅에 올인하는 이유는 그동안 스마트폰 OS를 독점 시장으로 가져왔던 윈도 모바일의 대항마로 꼽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이

따라 발표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전략 및 올해 이후 전략도 안드로이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등 향후 경쟁구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됐다.

국내 이통사 가운데 안드로이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 15개 가운데 블랙베리와 윈도우를 제외하고 모두 안드로이드로 구성하는 올인 전략을 수립했다.

또 안드로이드 개발 전담팀을 통해 외부 개발자(3rd Party Developer) 관리와 T스토어 내에 삼인삼(Ship in Shop) 개념으로 포함된 삼성 앱(Samsung Apps) 외에도 안드로이드 마켓 지원을 결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펀드 100억원 조성하고 개발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앱 등록비를 현 10만~20만원 수준에서 1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오는 29일에는 모바일 IT 전문교육센터를 개설,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획 및 개발 교육 과정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성공한 KT는 제품 출시 일정이 다소 여유가 있어 안드로이드에 대한 마케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 출시되는 10개 스마트폰 라인업 가운데 6개 정도를 안드로이드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로아그로코리아 윤정호 이사는 "통신사업자와 단말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사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소비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피하다"며 "안드로이드가 소비자에게 주는 서비스 방향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근욱 기자 lob13@e-today.co.kr

통신사 마케팅 규제에 업종 따라 '희비'

통신사-현금흐름등 재무개선...제조사-보조금 축소 재고량 급증

이동통신과 인터넷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이하 마케팅 상한제)으로 관련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마케팅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이동통신 시장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스마트폰 열풍이 다소 식으면서 별다른 이슈가 없던 통신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가 상승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각 분야별 매출액 대비 20% 수준으로 마케팅 비용이 묶이면서 전반적인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동통신 마케팅 비용을 감안할 때 사업자별 로 약 3000억~5500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통사의 시장 호재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는 내수 물량이 축소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가 축소되면 공짜폰 등 단말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데다, 신규 수요도 감소돼 재고 물량 처분이 쉽지 않지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글로벌 업체의 경우 휴대폰 판매량 가운데 국내 시장이 5%대에 머물고 있어 이번 보조금 축소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KT테크, SK텔레시스 등은 이번 마케팅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배근욱 기자 lob13@e-today.co.kr

KT, 무선인터넷 전방위 확대

이석재 회장, 테더링 방식 모든 단말기 적용



KT 이석재 회장(사진)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디어 서밋' 행사에서 현지 특파원 및 의신 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외의 모든 데이터 단말에서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브로드밴드(Mobile Broadband)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바일브로드밴드는 무선모뎀, e-Book, 태블릿 등 데이터 중심 단말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 회장은 모바일브로드밴드 전략의 하나로 테더링(Tethering) 허용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서비스 도입 △와이브로 네트워크 활용 확대 등을 꼽았다.

KT가 아이폰 도입과 무선인터넷 보급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테더링은 별도 무선모뎀 없이 이동전화 PC나 휴대폰 기기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와이브로나 i-Plug 같은 무선 모뎀이 있어야 노트북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폰이나 쇼음니아 등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예가다.

노트북이나 태블릿PC, PMP와 같은 데이터 단말의 무선인터넷 접속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별도 와이브로나 3G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통신요금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테더링을 허용하는 일부 해외사업자 사례를 보면 3G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 등 이유로 아이폰 테더링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KT는 그동안 구축해온 3W 네트워크(WCDMA, WiFi, WiBro)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테더링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근욱 기자

포털 다음과 아이돌 2AM 만났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인기 아이돌그룹 2AM의 신곡을 마이크로 블로그 '요즘(yozm)'과 서울 지하철네 '디지털뷰(Digital View)' 다음 뮤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2AM이 요즘에 직접 올린 글(yozm.daum.net/2am_invite)에 150차 팬레터를 반응글로 등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70명에게 초대권을 제공한다.

15일 압구정 CGV에서 개최되는 이번 쇼케이스는 10분 분량의 신곡 뮤직 비디오 풀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라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음은 서울 시내 1~4호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디지털뷰(Digital View)를 통해 국내 최초로 2AM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2AM의 신곡은 서울 시내 디지털뷰를 통해 15일 저녁 8시부터 상영이 시작되며, 인터뷰 영상 및 티저 영상 등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심민관 기자 smk@etoday.kr

SI업계, 부산銀 차세대시스템 수주 경쟁

400억원 규모의 부산은행 차세대시스템 사업 수주를 위한 SI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9일 차세대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삼성SDS, LG CNS, SK C&C, 티맥스소프트 등에 발송했다. 이들 SI업체 4곳은 지난 8월 기초정보자료(RFI)를 부산은행에 제출했다.

부산은행은 현재 차세대시스템 개발을 위해 13명의 인력을 배치

한 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 검토와 차세대 프로세스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5월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부산은행의 차세대시스템은 계정계와 정보계 시스템을 동시에 교체하는 '빅뱅'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12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민관 기자 smk@etoday.kr

LG텔레콤, 모바일 인터넷 1위 목표

OZ 2.0 발표...무선인터넷 대중화 선언

통합LG텔레콤이 모바일 최적화와 통합형 앱스토어 개발 등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통합LG텔레콤은 지난 11일,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OZ를 업그레이드 한 'OZ 2.0 전략 설명회'를 열고 향후 관련 분야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퍼스널모바일(PM) 사업본부 정일재 사장은 "OZ는 개방형 모바일 인터넷으로 지난 2년간 무선인터넷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며 "OZ 1.0에 이어 고객 기대수준을 뛰어넘는 OZ 2.0으로 모바일 인터넷에서 1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내놓은 OZ는 휴대폰에서 PC화면 그대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풀스크린 서비스와 월 6000원에 1GB를 제공하는 가격적인 요점, 대화면과 WVGA급 고화질 휴대폰으로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선보인 OZ 2.0은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모바일에 최적화한 OZ 애플리케이션 'OZ App(앱)' △통합형 앱스토어 'OZ 스토어' △OZ App에 최적화된 고성능 휴대폰 △OZ App 전용 요금제 'OZ 무한자유 플러스' △통

합 시너지를 활용한 절감형 FMC 상품 △폰텐츠-다비이스 융합형 컨버전스 서비스로 담았다.

원클릭 접속과 편리한 UI를 강점으로 하는 OZ App은 모두 21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부분 이달 중 선보이게 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과 일반폰 구별 없이, 향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수 휴대폰을 통해 단말 특성에 맞게 제공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오픈 스토어와 연동을 시작으로 3분기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통합시스템인 'OZ 스토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배근욱 기자 lob13@e-today.co.kr

CJ인터넷, PC방 총판업체 미디어웍 인수

CJ인터넷은 10일 게임 PC방 사업을 하는 미디어웍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율머 게임 개발사 씨드나인에 이어 추가 기업 인수를 발표한 것으로 CJ인터넷의 가속화/구체화되는 M&A(인수합병)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인수는 153억 원 가량이며 구주 인수(68.84%)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웍(PC방 수도권 지역 총판 사업)의 100% 자회사인 미디어웍이도 이번 인수로 CJ인터넷 계열로 편입된다. 미디어웍이이는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한 광고

및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상욱 CJ인터넷 전략기획실장은 "이번 인수로 국내 게임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PC방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태극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미디어웍의 기존 해외 사업 거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심민관 기자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 <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차습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뵙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저가에 홍보해드립니다.
- *접시 구매 및 문의 상담: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희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한계봉착 신세계 新가격정책

제조사 사전 협의 안해 품질 사태...화난 소비자



신세계 이마트가 이달부터 신가격정책 일환으로 라면 할인 판매를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주말 품질사태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 자신이 직접 발표한 신가격정책이 연초부터 이같은 품질 및 중소업체의 반발로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품질 사태 해결과 할인정책 지속 여부가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정용진 부회장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를 필두로 대형 할인점들이 지난 4일부터 할인 판매에 들어간 신라면 20개들이와 삼양라면 5+1 묶음상품이 지난 주말 동안 수요가 한계선에 몰려 상당수 매장서 품질이 빚어졌다.

이에 상당수 소비자들은 충분한 물량 준비없이 이마트가 할인 홍보만을 강조하는 '미끼전력'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혀걸음을 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저녁 이마트 가양점을 찾은 주부 한모씨는 "각종 뉴스에서 라면 할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쇼핑에 나섰지만 물건이 품질때 결국 구매하지 못했다"며 "오프라인 할인을 미끼로 유인해 다른 상품들을 찾게 만드는 속셈 같아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 할인판매에 들어간 이후 해당 제품의 매출이 급증했다. 이마트는 4~6일 신라면 20개들이 박스와 삼양라면 5+1 상품 매출은 일주일 전에 비해 각각 810%와 330% 늘었다. 홀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신라면 박스 상품이 각각 630%와 425% 늘었고, 삼양라면 5+1은 400%와 148% 증가했다.

이마트측은 7일 저녁 8시 기준으로 30~40%에 달하는 매장에서 할인판매 라면이 품질됐다고 밝히고 현재 이 사태가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대형마트가 공급량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것은 이번이 아니다.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들은 올해 1월부터 왔다 뒤 삼겹살과 CJ햇반, 오리온 초코파이, 서울우유, 바나나 등의 가격을 내렸다가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조기 품질을 피하지 못했다.

이마트에 식품을 공급중인 모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와 한 마디 사전협의 없이 가격 인하를 단행한 이마트를 보면 '따라 올레면 따라와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제조사는 엄연히 생산 스케줄 및 인력에 따라 공급일을 맞추는데 이마트가 매번 무턱대고 가격할인을 단행한다면 한시적 생산량 증가를 위해 회사는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야 하며 이벤트가 끝날 경우 다시 쓸모가 없어져 실·인력을 늘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할인정책 지속 여부가 충분한 공급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길잡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대형마트 빅3, 할인 전쟁 가속화

가전에서 간장·소금 등 생필품까지 확대

대형마트의 가격 할인 경쟁이 할인대상 품목 확대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연초 일부 주요 제품에 대한 파격적 가격 인하로 시작된 경쟁이 소금 등 핵심 생필품까지 확장되는 등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는 것.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의 초기 할인 대상은 삼겹살, 만두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과 신라면, 초코파이 등 업계 1위 브랜드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요 가공식품, 생필품뿐만 아니라 신학기 학용품, 인테리어 용품,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홀플러스는 창립 11주년 기념으로 생필품 최대 50% 할인 판매 행사를 시작했다. 간장, 고추장, 세계, 참치통조림 등 주요 생필품뿐 아니라 봄맞이 집단장을 위한 인테리어, 주방용품에 믹서기, 커피포트 등 소형가전제품까지 포함됐다.

롯데마트도 즉석식품과 간식류, 음료 등 가공식품과 세계, 휴지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100대 생필품 50% 절약효과 1+1 특별기획 상품전'을 실시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 화장



품과 야구, 축구 등 인기 스포츠용품, 특히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자전거 최저가 판매도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신문광고 상품을 신학기 학용품세트, 컴퓨터와 카메라, 학생용 가구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했다. 생필품인 조미료도 주요 할인품목에 포함시켜 간장, 고추장, 참기름, 소금 등의 가격을 크게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품목이 확대되면서 최근 고객 반응이 부쩍 좋아졌다"며 "박리다매를 통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 기업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스포츠 인터넷 쇼핑몰 '주의보'

10~20대층을 주타겟으로 운동화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 인해 배송 지연·환불거절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가방을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 접수 380여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가방, 의류 등 유명브랜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은 물건을 해당 쇼핑몰에

서 주문을 완료했음에도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환불 지연 및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이 되는 피해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주요 피해품목은 신발이 277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이 52건(13.5%), 의류가 45건(11.6%)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내용은 △배송지연 및 사유 미통지에 대한 불만이 195건(50.4%)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95건(24.5%) △연락불가로 인한 불만은 38건(9.8%)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은 26건(6.7%)이다.

김지나 기자
kjin@e-today.co.kr

11월부터 치즈류도 나트륨 표시 의무화

김영원, 축산물 유힬사법 단속 특별경찰관제

오는 11월부터 치즈류도 다른 유제품처럼 나트륨과 열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영원은 고기를 개칭해 치즈류도 나트륨과 열량,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품목은 조제유류, 우유류, 가공유

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으로 유제품 가운데서는 치즈류만이 빠져 있다. 다만 영세업체를 위해 예외기간을 뒤, 11월 이후 새로 생산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하되, 표시하지 않은 채 이전에 생산된 제품도 3~6개월간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원은 또 축산물 유힬사법을 전담해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상희 기자

8월부터 막걸리 품질인증제

농식품부, 내년부터 모든 주류에 확대시행

막걸리(탁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14일 국제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5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통주진흥법 시행령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품질인증제 대상품목과 표시방법, 인증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품질인증제는 주류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막걸리를 구매할 때는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사주게 된다.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주류품질인증제는 국제

청이 지난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인증 대상을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이어 내년엔 모든 주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 2월 전통주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주류 '진흥'에 관한 업무가 농식품부로 모두 넘어갔고 농식품부가 국제청의 계획을 이어 받아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난해 국제청이 추진했던 주류품질인증제 계획을 승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제는 올해 막걸리와 청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몰이를 한 막걸리는 지난해 1~10월 국내 소비량은 15만8천309리로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했고 수출량도 지난해 한해 7천405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오뚜기, 차시장 진출

오뚜기가 차(茶) 생산 업체인 삼화한양식품을 인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삼화한양식품 주식 12만 주(80%)를 112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삼화한양식품은 지난해 매출액이 221억원을 거둔 중소업체로 티백형과 스틱형, 프리저브형 등 다양한 차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오뚜기가 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차 시장은 중소업체들이 주문자상 포부 차 방식 생산(OEM)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서식품이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내달부터 생필품 가격공개 품목 80개로

가격공개 절반 가까운 상품서 가격 인하 효과 '톡톡'

한국소비자원이 내달부터 생필품 가격 공개 품목을 현재 40개에서 80개로 두 배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품목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과 함께 가격 인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원은 가격정보 대상 품목을 현재 40개에서 이달부터 59개로 확대하고, 가격정보 제공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4월부터는 80개로 확대할 것이라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홈페이지(price.tgate.or.kr)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이같은 결정은 사업

시행이후 상당수 가격공개 상품에서 가격 인하 효과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말과 2월말을 기준으로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55개 판매점에서 판매된 136개 상품 중 통계 산출이 가능한 93개를 대상으로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상품(46개, 49.5%)의 가격이 1월말보다 인하됐다.

가격 인하율이 가장 큰 상품은 밀가루(20.1%)였고, 키친타올(17.7%), 주방세제(15.5%) 등의 순이었으며, 삼푸, 참치캔, 세탁세제, 게맛살, 커피믹스 등의 상품도 10% 이상 인하됐다.

반면 38개(40.8%) 상품은 가격이 인상됐다. 이중 쇠고기불고기(23.8%)가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린스(23.7%), 삼푸(18.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가격등락 현상이 실 명질 등 시기적 요인 또는 각 업체의 가격인하 전략 등으로 인한 지체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생활필수품 가격정보 제공 사업을 시범운영한 이후 2개월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선택정보 제공과 함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달부터 가격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기존의 40개에서 59개(식빵, 분유, 세면용비누 등 19개 추가)로 늘리고, 판매점도 87개에서 133개로 확대했다.

또한 가격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3월부터 판매점에서 제공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지는 여부를 바코드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필품 가격정보제공 본격운영에 돌입하는 4월 1일부터는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80개로 늘리고, 판매점도 전국의 광역시 이상 135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조상희 기자

구분	10.2월	10.3월
품목수	40개	59개
기존 품목	두부, 콩나물, 햄류, 쇠고기, 밀가루, 인면, 쌀, 식용유, 커피, 소주, 생수, 콜라, 사이다, 참치캔, 두루마리화장지, 차, 쌀, 쌀, 생선대, 기저귀(난녀용품), 일반용세제, 소세지류, 맛살, 돼지고기, 어묵, 우유, 소금, 녹차, 맥주, 부침가루, 새우깡, 조미김, 달걀,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린스, 핸드로션, 물티슈, 키친타올	(좌동)
추가 품목	-	단무지, 식빵, 분유, 발효유, 냉동만두, 김치, 모나카유, 국수, 초코파이, 고추장, 된장, 카레, 참기름, 혼합조미료, 랩, 면도날, 세면용비누, 고무장갑, 호일

www.goodi.com

펀드이동

최우수 펀드판매사와 디자인하세요

한국투자저보호재단 2년연속 선정

최우수 펀드판매사

(2010년 1월)

모닝스타-마니투데이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판매사

(2009년 12월)

펀드 불만제로 서비스시행

불만전 판매 시 손해액을 배상해드립니다

[펀드119]

1600-0119

최우수 펀드판매사로 손쉽게 이동하는 방법

- 1 기존 펀드판매사의 지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서 발급
- 2 신한금융투자에 판매사도 신청 및 계약해지
- 3 최우수펀드판매사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마일렛 누리기

펀드 불만제로 서비스란?

펀드 불만전 판매 시 고객님의 손실비용 일체를 한금해드리는 제도 (펀드매수 후 15영업일 이내, 펀드 가입 후 1개월 이내)

대고객 감사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매일 알찬 투자정보와 풍성한 사은행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정한 이벤트내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본 상품 서비스 이벤트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입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이투자자에게 귀속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한도, 보수, 수수료 등에 관하여 약관, 투자설명서,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존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실거래당상품으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 및 판매사는 이통이 제외되며 3개월 이내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1057호(2010.3.8-2010.6.3)

투자를 디자인하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그룹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생명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 BNP | 파리바 | 자산은행 | 신한대티시스템 | 신한신용정보 | 신한브라이빗캐피탈 | 신한팩리더금융지원 | 신한아이티스

■20대 2명의 창업성공 스토리

돈도 벌고, 자기개발도 하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2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퇴직자나 주부창업자 등 기존 세대 창업자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자기개발의 기회로 여기고, 사전 준비가 치밀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충분히 활용해 부족한 사회 인맥을 보완한다.

서울 교대역 부근에서 젤라또 아이스크림 카페 '카페파마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애(24)씨. 지난해 4월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창업했다.

그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뒤져가며 정보를 얻었고, 생과일음료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아이스크림에 커피를 첨가하면 일년 내내 매출이 꾸준할 것으로 판단했죠."

대신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는 달리, 정통 이탈리아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아이스크림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계절별 매출 편차를 극복한 것도 차별화 요소다. 그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 커피, 와



이정애 사장

플, 샌드위치 등의 메뉴를 추가하고 테이크아웃 판매를 주로 하던 매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한 카페 개념을 도입했다.

서울 서경대학교 앞에서 도시락 전문점 '한솔도시락'을 운영하는 홍성우(29) 사장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직장생활 대신 창업을 선택, 52㎡ 점포에서 월 평균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시설비와 점포 임대비용 등으로 총 1억 1000만원이 든 점포지만, 홍 사장이 투자한 비용은 위탁보증금 3000만원이 전부. 나머지 비용은 본사가 투자했고 운영은 홍 사장이 직접 한다. 도시락과 함께



홍성우 사장

판매 가능한 음료수나 컵라면 등 추가 상품들을 갖춰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점포의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도시락을 사면서 음료수나 컵라면 등을 함께 구입하기 때문에 객단가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홍 사장은 "가령 2500원짜리 도시락을 사면서 500원짜리 음료수나 컵라면을 함께 구입하니 객단가가 종전에 비해 20% 정도 높아졌다"며, "도시락만 판매할 때보다 고객층도 다양해지고 수익구조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대기업 3곳중 1곳 인턴모집

인턴십 마친 뒤 공채 지원엔 우대

대기업 3곳중 1곳이 올해 인턴사원을 모집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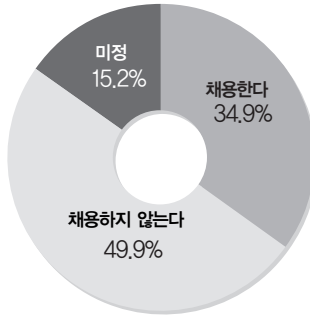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담긴 40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인턴 채용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9%(142개사)가 '올해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이 49.9%로 가장 많았으나, 15.2%(62개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미정)'고 답해,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인턴 채용규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규모와 시기를 모두 확정된 기업은 100개사였으며, 이들 기업의 총 인턴사원 채용규모는 1만457명으로 집계됐다. 42개사는 인턴채용 여부를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채용규모는 '미정'이라 밝혔다.

올해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142개사) 대부분은 인턴십 수료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2010년 대기업 인턴 채용계획



'인턴십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최종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답한 기업이 14.1%로 10곳 중 1곳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는 인턴십 수료자가 정규직 공채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준다' (36.6%)거나 '우대' (16.2%)하여 일부 채용 전환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이 과반수이상(52.8%)에 달했다.

반면 '아직 어떤 혜택도 정해지지 않았다(미정)'는 기업은 7.0%였고, '어떠런 혜택이 없다'는 기업은 26.1%로 조사됐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상반기 공기업 채용 늘어난다

전년 동기대비 채용규모 두배 증가

지난해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먹구름이 드리웠으나 올해는 먹구름이 가실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공기업 46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정규직 대졸신입 채용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기업 중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은 23.91%(11개사)며, 47.83%(22사)는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채용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28.26%(13사)였다.

올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정된 기업(11개사)의 일자리는 535명으로 지난 상반기 채용 규모(238명)보다 79.53%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기업 당 평균 48.6명을 채용하는 셈. 또 올해 신입사원의 연봉은 '삭감한다'고 밝힌 곳은 13.04%로 6곳에 불과했으며, '삭감없다'는 78.26%(36사)였다. 연봉을 밝힌 20개 공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초임연봉 수준은 평균 247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기업 중 '인턴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76.09%로 35사에 달했다. '계획없다'는 13.04%(6개사)였으며, 아직 '채용계획이 미정'인 곳은 10.87%(5사)로 나타났다. 상반기 인턴 채용규모는 2천729명으로 기업 당 평균 77.9명을 뽑는다.

조상희 기자

외국계기업 상반기 채용 바늘구멍

국내 외국계 기업의 상반기 채용시장도 팽팽 얼어있다.

실제 잡코리아가 국내거주 외국계 기업 94곳을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정규직 대졸신입 채용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 밝힌 외국계기업은 25.53%(24개사)에 불과했고,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곳은 62.77%(59개사)로 과반수였다. 나머지 11.7%(11개사)

기업은 채용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24개사의 채용인원은 총 2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522명) 무려 56.9%나 감소한 수치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여가게 더욱 무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상희 기자

“대기업이라도 비정규직 NO”

구직자, 안정성이 최우선

구직자 상당수가 입사지원할 때 기업규모보다 고용형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1254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대기업·공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가장 선호하는 기업 유형을 고르는 기준(복수응답)으로 '고용형태'(58.8%), '연봉수준'(45.4%), '직무분야'(42.7%), '근무지역'(40.1%), '복리후생'(32.5%), '기업형태'(29.8%), '기업규모'(29.8%)를 들었다.

반면, 대기업 및 공기업 비정규직을 선택한 구직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큰 기업에서의 경험이 커리어에 도움될 것 같아서'(74.2%)를 제일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업규모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64.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아무래도 정규직의 연봉·복리후생이 더 좋기 때문'(38.1%), '대기업·공기업보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

(22.5%), '대기업·공기업에서보다 내 능력이 더 돋보일 것 같아서'(20.6%), '이직을 통해 단기간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9.2%) 순이었다. 이들은 입사희망 기업을 고르는 기준(복수응답)으로 '고용형태'(58.8%), '연봉수준'(45.4%), '직무분야'(42.7%), '근무지역'(40.1%), '복리후생'(32.5%), '기업형태'(29.8%), '기업규모'(29.8%)를 들었다.

반면, 대기업 및 공기업 비정규직을 선택한 구직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큰 기업에서의 경험이 커리어에 도움될 것 같아서'(74.2%)를 제일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기대해서'(42.6%), '중소·벤처기업보다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32.0%),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곳이라는 자부심 때문에'(25.8%), '중소·벤처기업보다 업무가 수월할 것 같아서'(16.8%)가 뒤를 이었다.

이들이 입사희망 기업을 고르는 기준(복수응답)은 '기업형태'(62.3%), '근무지역'(57.8%), '고용형태'(53.3%), '연봉수준'(50.0%), '직무분야'(48.4%), '기업규모'(30.3%), '복리후생'(24.2%) 순이었다.

조상희 기자

중견기업 5곳 추천 이전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추천시는 수도권 5개 중견기업이 최근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가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부지가 확정된 5개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동아전장(주), 동아전기 부품(주), 의료용구를 제조하는 (주)베리콤,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주)팜스젠, 의약품 항생물질 등을 제조하는 (주)팜스웰바이오 등이다.

서울, 안양, 구리 등에 본사와 공장을 둔 이들 기업들의 추천 이전이 완료될 경우, 총 9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천시는 올해 종업원수 50명 이상 중대형 기업 10개를 포함, 30여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준평가



가할 수 있는 변수 및 평가지표를 마련했고 업계·학계 등에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마쳤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의 공정위에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브랜드)를 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 창업과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프랜차이즈 연구회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관련 국·내외 논문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를 평

상으로 △가맹본부의 특성 △가맹점사업자의 특성 △계약특성 △시스템 운영특성 △관계특성 및 성과 등 6개 범주를 평가해 수준에 따라 예비·성장(레벨1)·성숙(레벨2)·성숙(레벨3)의 4단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는 관계로 충분한 사전 점검을 위해 올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하반기에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실시할 심사원 선발(40여명 내외)을 이달중에 마무리

하고 수준평가 지표의 이해 및 평가의 공정성 등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샵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 역량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창업아카데미 야간과정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마포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플라자에서 '2010년 소상공인지원아카데미' 야간창업과정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야간과정에는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가 업종별로 체계적인 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식업, 도소매/서비스업, e-biz 강좌'를 개설하며 기존창업자를 위한 '경영개선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창업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1577-6119, www.seoulshinbo.co.kr).

봄청소 무리하면 관절에 무리

바닥청소·빨래날기·무거운 짐들기 잘못하면 병원신세

봄이 되면서 집집마다 봄맞이 대청소가 한창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집안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질환을 얻어 병원을 찾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특히 평소 무릎이나 어깨, 허리 등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주부들은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실이나 방 바닥을 닦을 때는 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일하는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세는 무릎에 무리를 많이 가져와서 무릎의 통증을 가져오거나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심하게 무리할 경우 연골판 열어도 이르는 경우가 있다.

반월상연골판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판으로, 두 개가 마주보고 위치해 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윤활 역할을 한다. 나

이가 들면서 탱탱하던 연골판이 마모돼 물렁해지면서 40대 이후 주부들에게 발병률이 높다.

설거지나 손빨래 등 손목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의 반복된 사용으로 열근을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처음엔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고, 심하면 통증이 생기고 물건을 집을 수 없거나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어 진다.

또 손에 마비 증상이 오고, 팔이나 어깨로 통증이 확대되기도 한다. 가끔 손이 저리고 아파 손을 주무르거나 털어주면 증세가 사라지는 경우를 반복해 경험하거나, 자다가 손이 저리고 아파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지 털기, 빨래 날기 등 과도하게 팔을 쓴 후 어깨가 결리고 팔

전체에 통증이 나타나면 오십견을 의심해 봐야 한다. 50대에 잘 나타난다 해서 명칭이 지어진 오십견은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나 근육관련 조직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질환이다.

손에서부터 팔을 거쳐 어깨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 스스로 팔을 들어올릴 수 없다. 또 밤이 되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통증 부위로 돌아놓지 못한다.

오십견은 자연 치유되기도 하지만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어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치료에는 온찜질, 소염진통제 복용 등이 있고 관절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한편 오십견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질환으로는 어깨힘줄 파열(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있는데 심할 경우 수술이 불가피해 어깨가 아프면 관절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웰빙병원 송상호 원장은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환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며 "남성에 비해 여성 환자들이 많은데 이는 농운찜질, 소염진통제 복용 등이 있고 관절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한편 오십견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질환으로는 어깨힘줄 파열(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있는데 심할 경우 수술이 불가피해 어깨가 아프면 관절전문의를

스트레스 해소위해 술먹지 마세요

숙취로 피곤·우울 이어져...건전음주 '3少3多'로 해결

요즘은 직장인과 예비 직장인에게 잔인한 때이다. 직장인은 인사평가기간이라서 예비 직장인은 채용이 많은 기간이지만 더불어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병원, 다사랑한방병원이 20~40대 직장인 남성 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남성중 30%는 직무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음주를 선택했으며 58%가 직무스트레스가 음주욕구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비해 감정을 증폭시켜 과음하게 하고 과음으로 인한 두통, 속쓰림 등의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

다사랑병원 이무형 원장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을 있고 싶을 때 사람들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지만 술주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하고 "알코올 의존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음주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음주 습관을 바꾸지 못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억누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건전음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다. 알코올전문 다사랑병원 심재종 원장은 건전한 음주를 위한 '3少3多'를 제안한다.

첫째, 주소담다(酒少談多), 둘째, 잔소한다(量少釀多), 셋째, 육소채다(肉少菜多).

술은 적게 마시고 대화는 많이, 잔은 적게 안주는 많이, 육류는 적게 채소는 많이 먹



는다. 말을 하고 입으로 음식을 씹으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따라서 기분 좋을 정도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게 하루 3잔 음주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음주할 때 육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고 야채는 알코올 분해를 돕는다.

곽도훈 기자
sogood@e-today.co.kr

물만 먹어도 살찐다?

복지부, '비만바로알기' 책자 발간

밥을 빨리 먹으면 비만이 심해진다? 물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비만에 대한 정보들이 과연 사실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비만에 대한 정보 및 인터넷, 서적 등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비만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비만바로알기' 책자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은 비만관련 정보와 비만정보바로잡기 60선으로 구성돼 비만의 정의, 원인, 유발되는 질병, 진단방법, 식사요법, 운동치료, 약물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며 비만정보바로잡기 60선은 인터넷 등에 제공되는 정보들 중 60개를 선정, 의학적 평가 및 과학적 근거여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다이어트서적과는 달리 서적, 인터넷(카페, 지식사이트, 다이어트보조식품)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잘못된 정보→잘못된 정보→의학적실명→결과정리→근거여부평가→시행권유여부→참고문헌 순으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비만바로알기 책과



CD를 전국 253개 보건소에 보급, 지역주민에게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정보시스템 및 e-건강다이어리에 탑재해 온라인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e-today.co.kr

대한한의사협, 21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이 확정되며, 차기 대한한의사협회를 이끌어 갈 제40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및 공석 중인 대의원총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진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에 대한 내용과 각종 현안과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는 김정곤 전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이범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이 출마한 상태다.

곽도훈 기자
sogood@e-today.co.kr

건보공단, 건강증진 공동관리 협약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회등과 협력회 추진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는 11일 공단 8층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및 경기도생활체육회와 경기도민의 건강향상과 생활체육을 위한 건강증진 공동관리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생활습관 개선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공동수행 및 각 기관의 시설 및 강사 등 건강증진사업 자원의 공동이용,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등이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건강

증진서비스 분야의 기능·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분야의 협력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향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 동안 각 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특정지역이나 경로당에 반복, 집중되던 건강운동교실을 분산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수준높은 건강증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도훈 기자
sogood@e-today.co.kr

분당차병원, 장기이식센터 개소

'신장이식의 대가' 박기일교수 센터장으로 영입



입과 함께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분당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이식외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전문의료진의 원스탑 협진으로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화된 이식병동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신장이식

후 케어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또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감염 환자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장기이식환자를 배려하고, 빠른 검사결과와 도출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위해 아침 조기진료를 시행하는 등 분당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모든 프로세스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해 더욱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장이식 분야의 최고 권위로 꼽히는 박기일 교수는 1979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 수술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2400례의 신장이식 수술건수를 진행한 경이적인 기록의 보유자로 풍부한 임

상경험이 최대 강점이다. 박 교수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 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환이식(공여자 교환을 통한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제 케도에 올려 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분당차병원은 2010년 전문병원 중심의 진료기능의 강화와 함께 외과영역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월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총무로 활동중인 정형외과 김희천 교수를 영입한 바 있다.

최종 분당차병원장은 "앞으로도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중견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한편 교수들의 역량강화로 내실을 다져, 국내 최고의 임상수준을 갖춘 전문병원 중심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도훈 기자

알앤엘바이오, 인간 태반서 상피줄기세포 배양 기술

국내연구팀이 인간 태반 양막으로 부터 상피줄기세포 배양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상피줄기세포 연구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의 강성근 박사 등 알앤엘바이오 중앙연구소 줄기세포연구팀의 '인간태반양막유래 상피줄기세포의 임상적응을 위한 새로운 세포분리 및 배양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생과 생식'

저널 제13권 제4호에 채택됐다고 8일 밝혔다. 태반 유래 양막상피세포는 성체줄기세포의 보고로 배양 줄기세포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임상적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증식 배양하는 것이 어려워 세포 치료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그 동안 요구됐던 태반 양막으로부터 상피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전처리하는 과정과 이후의 세포를 분리해 배양하는 방법, 세포를 안정적으로 증식배양하는 방법을 정립하는데 성공해 앞으로 주요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재료로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곽도훈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기아차 연비는 높이고 탄소는 낮추고 그린카 4대강국 시동걸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팔레스포에서 올해로 80회를 맞는 '2010 제네바 모터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세계 5대 모터쇼로 추앙받고 있는 제네바모터쇼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 250여 업체와 1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해 자사의 신기술을 전시했다.

이번 제네바 모터쇼의 화두는 단연 '친환경'이다. 이제 그린카는

현대·기아차는 최근 고효율 및 친환경차 개발 계획 및 그린 파트너십 강화 등을 담은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세웠다. 향후 2~3년 내에 저탄소 녹색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차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런 전략의 중점 추진 과제로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및 녹색투자 확대, 글로벌 환경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소 감축 효과가 커지고 석유 의존도도 줄어드는 완전 무공해 차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저감기술·경량화로 연비 개선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및 연비 규제 강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에너지 손실 저감기술, 경량화

장기적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순수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 등 장기적인 친환경차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가별, 업체별로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차 개발 동향을 주시하며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나라별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별 그린카 시장 환경에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반떼와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로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연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중형 세단급 이상에도 탑재해 올해 신형 쏘나타를 필두로 북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2012년경 가정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도 나온다.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융합이 아닌, 순수한 개념의 전기차도 내

년부터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 정부 및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양산 가능한 단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한다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차세대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를 기반으로 스스로 전기를 발생시켜 완전 무공해(Zero-emission)차인 수소연료전지차도 시범 운행 단계에 있다. 2012년 투싼ix와 스포티지R을 바탕으로 연료전지차를 시범 운행 및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핵심 부품과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협력사들과 20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에 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조직 확대 및 핵심 인력 확충을 통해 미래차 개발 역량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친환경차 개발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대표주자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하이브리드차 대중화의 첫 단추를 끼운 올해를 '그린카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차 개발 및 대중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협력사도 친환경 부품 개발 강화 현대차,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 지원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에 △저탄소경영 체제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온실가스 공적진단 및 개선, 총량관리 맵(map) 및 감축테마 실행 △협력사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 등을 통해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

특히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차 경쟁력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IT, 전기·전자산업 등 관련 첨단 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투자 증대와 더불어 생산 및 고용 증가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을 줄이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을 저탄소 산업 구조로 개선해, 궁극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 왔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 따른 친환경차 개발은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 및 확산시키고 이에 따른 투자 증대와 관련 부분의 고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차 관련 협력회사가 첨단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기술들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막대한 만큼, 친환경 부품회사의 공동 개발을 통한 그린 파트너십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고용창출,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친환경차 개발 가속도를 높여 친환경차 부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자동차 업체로 지속 성장함으로써 세계 일류 녹색 선진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녹색성장추진 전략' 수립...향후 2~3년내 친환경차 출시 계획

하나의 유행을 넘어 '거슬러서는 안되는' 자동차 업계의 숙제가 됐다. 친환경차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발맞춰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진입을 위한 '친환경 효율을 그린카'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극 대응을 위한 친환경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협력사 녹색 기술력 제고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Fuel Efficiency),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Low Carbon) 고효율차 및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 탄

등을 통해 연비 개선은 물론 수출 주력국의 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국책과제로 수행 중인 '스마트 그린카' 역시 그 가운데 하나. 현대·기아차는 올해부터 등장하는 대부분의 양산차의 연비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개선할 계획이다.

토요타, '라브4' 최고 300만원 이상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라브4'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캠리'와 '프리우스' 등은 오는 10월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14일 한국토요타 관계자에 따르면 '라브4'는 다음달부터 200~300만 원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며, '캠리'와 '프리우스' 등도 오는 10월부터 가격이 200~300만 원 인상된다.

따라서 토요타 딜러들은 '라브4'는 이달 안에 출고가 가능하며 고객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캠리'와 '프리우스' 등도 지금 계약하면 오는 6월 정도 인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을 빨리 인도받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다음 달 중에도 인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이 차량 인도 일자가 빨라진 이유는 수입물량이 30% 정도 늘어난 탓도 있지만, 계약 취소 고객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프리우스'는 10대중 5대,

'캠리'는 10대중 2~3대의 계약 취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타의 한 딜러는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금의 판매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 영향이 크다"며 "대신 가격을 인상할 때 옵션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2010년형 '캠리'와 '코롤라' 등의 구매고객들에게 5년간 무이자 할부, 2년간 유지비용 무료 등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토요타 딜러들은 프로모션과 관련한 문의가 최근 부쩍 늘었다고 한다.

토요타 한 딜러는 "조만간 차량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는 것이 프로모션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입원인 한국토요타 관계자 역시 "현재 토요타 브랜드와 관련된 프로모션은 계획된 것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獨 최우수 타이어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 독일의 권위있는 자동차 전문지의 로드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2일 독일의 권위 있는 유명 자동차 전문지 3개 매체에서 실시한 타이어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 최고등급을 차지했다. 한국타이어의 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는 독일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스포트(Auto Motor Und Sport)에서 치른 타이어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구테 파르트(Gute Fahrt)가 실시한 비교테스트에서 '강력추천' 등급을 획득했고, 경상용차용 타이어인 '래디얼 RA14' 역시 프로모빌(Promobil)이 실시한 테스트에서 '강력 추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벤츠, 北美서 현대차에 도장

독일 다임러그룹의 메르세데스-벤츠가 마침내 북미 소형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메이커가 주름잡고 있는 북미 소형차시장에 만만찮은 적수가 등장하게 됐다.

14일 오토모티브 뉴스를 포함한 다수의 외신은 2010 제네바 모터쇼에 참가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르세데스-벤츠가 조만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북미 소형차와 콤팩트 SUV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요아힘 슈미트(Joachim Schmidt)' 세일즈 마케팅 총책임자는 "아직 구체적인 데뷔시기와 모델 등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환율 등의 문제를 따져 조만간 북미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고 전하고 "2011년 말 등장할 B-클래스(한국에선 My-B)의 후속

을 바탕으로 해치백과 콤팩트 세단 등 다양한 모델이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북미시장 소형차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편의장비, 가격 등을 두루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일본의 토요타, 혼다 등이 경쟁하고 있는 북미 소형차시장에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메르세데스-벤츠가 진출하면서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폭스바겐 TSI 엔진, 독일 환경상 수상



폭스바겐의 TSI 엔진이 독일의 기술감리 기관인 TUV가 인증하고 수여하는 환경상을 수상했다. TSI 엔진은 지난해부터 3번에 걸쳐 수상한 '올해의 엔진상'을 비롯해 다양한 수상 경력을 앞세워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최소의 연료로 최대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폭스바겐의

TSI 엔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휘발유 엔진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컴팩트한 크기에 강력한 파워와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동시에 갖춰 엔진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1.2l 및 1.4l 트윈차터 엔진을 비롯해 1.8l, 2.0l 엔진까지 다양한 유닛이 나와있고, 최고출력도 104마력~270마력까지 다양하다. 현재 소형차 풀로에

서부터 골프, 티구안, 시로코, 파사트까지 여러 모델에 탑재돼 판매되고 있다.

한편, TUV에서는 독일공업표준인 ISO 규격에 따라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의 환경특성을 고려해 생산에서부터 재생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이름나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美 GM '올해 우수 공급업체'로 만도 선정

조향시스템 분야...2003년부터 다섯번째 영광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만도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올해의 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만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GM 본사 테크니컬 센터에서 '2009년 올해의 공급업체(Supplier of the Year, SOY)' 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만도는 GM 본사로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5번째의 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만도가 이번 수상한 부품은 GM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조향시스템 분야로서 품질, 공급시기, 기

술, 가격 등 4개 부분을 대상으로 심사를 받은 후에 선정됐다.

만도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GM유럽으로부터 1등급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GM의 지역별 본사가 아닌 글로벌 GM의 본사로 부터 수상한 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만도 관계자는 "품질제일을 모토로 그동안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이번에도 GM으로부터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창업자 정신을 이어 받아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해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GM을

포함한 선진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도 최고 품질의 부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도는 지난 1997년 GM에 조향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빅3에 자동차 제동 장치, 조향 장치, 현가장치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만도는 GM으로부터 ABS(Anti-Lock Brake System, 미끄럼 방지 제동 장치)와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주행 안정성 제어 장치)를 지난 2007년 수주에 성공해 지난해부터 공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BMW 뉴 5시리즈 가격 '구형보다 낮았다'

올 한해 수입차 시장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BMW 5시리즈의 가격이 공개됐다.

14일 BMW 관계자에 따르면 "직렬 6기통 2.5l 엔진을 얹은 523i이 6380만 원, 직렬 6기통 3.0l 엔진을 얹은 528i가 6790만 원이다. V6 3.0l 엔진에 트윈 터보를 얹고 뉴 5시리즈의 가장 윗급 모델로 자리매김할 535i는 9590만 원"이라고 전했다.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은 역시 528i다. 새 모

델은 같은 엔진을 얹고 구형 모델보다 가격을 오히려 100만 원을 낮춘 뉴 5시리즈의 불꽃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BMW 관계자는 "호불호가 뚜렷했던 이전과 달리 새 5시리즈의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많다"고 밝히고 "안정적인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가격까지 납득할 수준에 맞춰 회사차원에서도 나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노사문화 뉴 패러다임 노조를 노조원·사회에 환원한다

그동안 투쟁과 대립으로 일관했던 노사관계가 사회의 전반적인 상생 분위기에 힘입어 변화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산맥으로 굳어졌던 노동조합에 신노사문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제3의 연맹이 탄생했고, 회사와 노조도 강경이 아닌 동반자적 노선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를 겪으며 이같은 화해 무드는 신노사문화에 빠르게 흡수되는 등 향후 노사관계의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제까지 평행선을 걸어온 회사와 노조가 화합하기에는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견해도 높다.

그 동안 산업계에서 연례행사로 여겨 왔던 '춘투,추투'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새로운 노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년 회사와 노조가 임금, 처우 개선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벌이며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등 공격적인 행보를 걸던 기존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벗어 내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존 양대 노총과 다른 활동을 모색하는 제3의 노조연대가 탄생했다.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메트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과 KT, 현대미포조선 등을 중심으로 '새희망 노동연대'가 출범, 12만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제3노조 시대를 열었다.

새희망 노동연대는 기존 노동단체가 정부와 회사 교섭을 벌이던 관행에서 탈피해 현장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사회 환원 사업을 펼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의 단체로 출발을 알렸다.

이 단체에서 가장 먼저 신노사 문화선언을 한 KT는 출범 하루만인 지난 5일 이석재 회장과 김구현 KT노조위원장이 '올레 KT 창조적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노사가 힘을 모으기로 손을 맞잡았다.

KT 노조는 지난해 6월 KTF 합병과 같은 해 5000명 구조조정에서도 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등 노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앞장섰다.

김구현 KT 노조위원장은 "민노총 탈퇴 이후 새로운 노동운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만족시키고 조합원이 주체가 돼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배려하는 독창적 노동운동"이라며 "노동조합 단독 프로그램 외에 KT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더 많은 혜택을 나누기 위해 노사 공동프로그램을 가미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 동안 공식행사에도 빨간색 머리에 투쟁 조끼를 입고 나왔던 민주노총의 경우 올해 새로 선출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일 한 행사에 양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조에서도 무교섭 타결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임공동결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에 합의했다. 하이닉스의 경우 워크아웃이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경제적 성격을 띤 '노사'보다 '노경(勞經)'이라는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10일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64주년 기념식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단어를 써 올 정도로 무교섭에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매년 △노동조합의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 △회사 수익성 제고경영 및 고용안

1987년 부터 21년간 무분규 기록을 달성하며 신노사 문화 대상의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하이닉스 노경은 지난 1995년 부터 '회사와 근로자는 하나'라는

사문화 정착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노조에서 사회적 책임을 선언한 것이 첫 사례라는 점에서 LG전자 노동조합의 행보가 벌써부터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준수 노조위원장은 "노동운동도 사회 흐름에 맞게 혁신과 변화과정을 거쳐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시한 4가지 실천지침에는 △생명공동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생태적 온전성 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제 공동체를 위해 공헌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촉진 △현장 경영자로서 업무현장의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등이다.

박 노조위원장은 "우리의 환경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세계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대처해야 할' 위기로 규정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 기업시민의 소명을 다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노조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LG전자 노동조합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노경문화를 만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욱·송영록 기자
lob13@e-today.co.kr

KT노사, 지속적 기업가치 창출협력 LG전자 노조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 선언

정 노력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경협력 등을 실천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놓였던 지난 2000년에도 노경이 단결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17분기 연속 흑자를 일궈냈으며, 지난 2008년에는

는 '노사불이(勞社不二)' 정신을 바탕으로 임직원 월급에서 끝자리 금액을 기부하는 '끝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LG전자 노조도 지난 1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며 신노

노조는 판촉띠 두르고 세일즈 나서고 회사는 구조조정 대신 성과급 지급

지난해 3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영진약품의 흥승고 노조위원장은 자칭 회사내 최고 세일즈맨이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영업사원들과 판촉 문구가 적힌 하얀띠를 두르고 영업활동에 나선다. 약국, 병원 등 가리지 않는다.

회사도 노조의 변신에 고무돼 구조조정 대신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흥 위원장은 "이런 게 진정한 노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노사관계의 흐름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과 같이 상호협력과 타협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신노사 문화를 가치로 내건 노사관계의 선진화다. 희망연대의 공동대표인 오종재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같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노사합의로 근로자 전환 배치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회사와 긴밀한 협력 속에 일감이 부족한 조선 부문 인력을 5개 사업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노조측은 "노동자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노동자를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감사 안아 힘을 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철'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던 서울메트로의 변화도 눈부시다. 1981년 회사설립 이래 총파업 10회, 태업 2회, 노동쟁



KT는 지난 5일 서울동대문구 KT올레캠퍼스에서 열린 '올레 KT 창조적 신노사문화 공동선언' 행사에서 이석재 KT 회장(앞줄 가운데 오른쪽)과 김구현 KT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의행위 27회 등을 기록했고 직원들의 근무중 취침, 음주 등 후진적 문화로 인해 줄곧 적자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1월 임단협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한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2월엔 노사공동 나경경영 선언 등 신노사 문화가 정착됐다. 이를 통해 같은 해 9월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이후 회사의 사업영역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이성희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이 수개월 간 시 관계자와 사업권자 등을 만나며 공을 들인 덕에 결국 김포와 의정부 경전철 운영권을 따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10년간 총 95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희망연대 가입 노조의 이같은 신노사문화 움직임 속에 지난 10일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노동자 대중의 권리 확대에 힘 쏟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동운동을 해나가겠다"며 "노동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제도약과 사회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신노사문화의 가치를 공표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LG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전격 위임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1990년 이후 21년 연속 무분규 타결도 이어갔다.

이같은 신노사 문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한국 노사관계 변화에서 먼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노동경제학회장)는 "한국 노사관계는 1970년대의 사용자와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노사관계였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후반엔 대립적 관계로 변모한 게 지금까지 이어왔다"며 "이제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최근 변화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오종재 대표는 "기존 노동단체들은 조합원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조합원과 국민을 섬기는 등 노동운동의 질적 변화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대표이사 남용 부회장(사진 오른쪽), 박준수(林俊守) 노동조합위원장(사진 왼쪽) 등 노경(勞經)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임단협을 가졌다. 이날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인상을 회사 측에 전격 위임하기로 했다.

www.youfirst.co.kr

내 펀드는 현대증권으로 간다

한마나 추가비용 없이 갖고 계신 펀드 모두 현대증권으로 이동하세요
펀드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진 서비스로 완벽하게 관리해드립니다

펀드이동제, 더 좋은 펀드서비스를 원하세요?

현대증권 QnA에 물어보세요

QnA와 함께하는 EVENT! 현대증권으로 go go go ... 기간 2010년 3월 2일 ~ 5월 31일

EVENT 1.

QnA와 함께하는 자산관리 festival

대상 위탁 및 금융상품 가입 고객

EVENT 2.

펀드의 신 따라잡기

대상 현대증권 펀드 컨설팅서비스 체험 또는 가입 고객

* EVENT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www.hyundailund.co.kr) 또는 고객센터 (☎1588-6611) 로 문의 바랍니다.

QnA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0-763호 (2010년 2월 16일~2011년 2월 15일)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장이 되지 않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본손실 될 수 있으며, 원본의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전 투자설명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에 유명 스타 결혼 소식 솔솔

장동건·고소영, 이범수·이윤진, 임효성·슈동료·공무원·통역사·프로농수선수등 다양

봄기운이 스멀스멀 올라 오면서 연예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3월 초 배우 임효와 가수 박상민이 늦깎이 장가를 간데 이어 4, 5월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4월에는 걸 그룹 S.E.S 출신 슈와 베이비복스 출신 김이지가, 5월에는 톱스타 장동건-고소영 커플을 비롯해 배우 이현경, 이범수, 박선영 등 유명 배우들이 연이어 결혼한다.

S.E.S 출신 슈(유수영·30)가 동갑내기 프로농구 임효성 선수(인천 전자랜드)와 4월 11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현재 임신 12주에 접어들 슈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결혼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에 이어 베이비복스 출신 김이지(31)가 증권맨 송현석(31)씨와의 웨딩사진을 공개하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 알콩달콩한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4월 17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1년간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한편 엑스키스 출신 은지원은 2살 연상의 첫사랑과 4월 결혼식이 퍼지며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은지원의 연인은 축구선수 이동국 부인 이수진의 전연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기의 톱스타 커플 장동건-고소영이 5월 2일 서울 잠종동 신라호텔에서 화촉을 밝힌다. 1972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영화 '연풍연가'에서 호흡을 맞춘 이후 친구로 지내다 2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어지

게 됐다. 배우 이범수(41)도 14살 연하의 아나운서 출신 통역사 이윤진(27)과 재혼한다. 두 사람은 이범수의 영어 공부를 위해 만나 2년 여간 예쁜 사랑을 키워오다 오는 5월 22일 서울 광진구 W 호텔에서 결혼한다. 예비신부 이윤진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으로 월드컵스타 비의 영어선생님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5월 3일에는 배우 이현경(38)과 뮤지컬 스타 민영기(37)가 서울 강남 대치동 마벨러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며, 배우 박선영(34)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인 김모씨와 7년간의 열애 끝에 5월 29일 신라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조승예기자 syssy@etoday.kr



장동건

고소영



이범수

이윤진



임효성

슈

Wedding Day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노린다

첼시, 바르셀로나등 17, 18일 경기 '박빙의 승부'

유럽은 지금 별들의 전쟁으로 뜨겁다.

유럽 최고의 축구 클럽들이 한 데 모여 펼치는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이하 챔스) 16강 2차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중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영국),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8강 진출권을 확보한 가운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첼시(영국)와 인테르 나치오날레 밀라노(이하 인테르·이탈리아), 바르셀로나(스페인) 등이다. 이 팀들은 오는 17, 18일 새벽(이하 한국시간)에 경기를 치른다.

축구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경기는 첼시와 인테르의 경기다. 두 팀은 세계 3대 리그 중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 A(아)를 대표하며 현재

리그에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다. 주재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인테르는 지난달 25일 홈구장인 '쥬세페 메아차'에서 펼쳐진 16강 1차전서 2-1로 승리한 바 있다. 그는 원정경기인 2차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안첼로티 감독의 첼시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디디에 드록바(코트디부아르)와 잉글랜드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프랭크 램퍼드가 공격을 이끈다. 2차전은 첼시의 홈 경기장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리는 만큼 1차전의 패배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다.

세계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손꼽

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오넬 메시와 중원의 지휘자 사비 에르난데스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이상)가 버티고 있는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 바르셀로나는 독일 프로팀 슈투트가르트와 맞선다.

스페인 프로축구의 복병 세비야와 러시아 대표 CSKA 모스크바, 울림피아코스(그리스)등도 이번 시즌 챔스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18일 16강 2차전이 모두 끝난 뒤 조추첨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8강 토너먼트에 돌입한다.

박태진 기자 tjipppo@etoday.kr

	경기	경기장(장소)
17일	세비야 : CSKA 모스크바	라몬 산체스-피스후안(세비야)
	첼시 : 인테르	스탬포드 브리지(런던)
18일	바르셀로나 : 슈투트가르트	캄프 누(바르셀로나)
	보르도 : 울림피아코스	스타드 사방-델마(보르도)

'꿀벅지' 유이, '비타500' 새 모델



걸 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가 '비타500'의 새로운 얼굴로 선정됐다.

올해로 비타500 출시 10년째를 맞는 광고계약은 '꿀벅지'로 불리는 건강미인 '유이'를 모델로 선정하고 새로운 TV-CM을 선보였다.

광고계약은 비타500 출시 이후 비, 이효리, 원더걸스 등 톱스타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해왔다. 떠오르는 신예 스타로 급부상한 유이는 지난해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에서 연기자로 변신하기도 했으며 각종 CF 모델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솔로 음반발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예 기자

프로스포츠, 기지가 떠다

축구 개막, 농구 플레이오프 돌입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주요 프로스포츠가 개막 및 우승 레이스에 돌입했다.

축구가 가장 먼저 팬들 곁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2010 소나타 K-리그'는 겨울동안 움츠렸던 축구팬들에게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 6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열려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국(전북)과 구자철(제주), 이승철(서울) 등 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K리거들은 팬들의 성원에 답하기 위해 그라운드를 누비며 멋진 골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인 27일에는 국민 스포츠 야구가 개막한다. 작년 500만 관중시대를 열며 국민 스포츠임을 입증한 프로야구는 올 시즌에도 국민들을 야구장으로 유혹해 600만 관중 동원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8개 구단은

시범경기를 통해 팬들을 만나고 있으며, 시범경기 개막일이었던 지난 6일에는 구장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아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했다.

겨울부터 열기를 이어온 농구는 지난 10일 원주 동부아 창원 LG의 6강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본격 우승경쟁에 돌입했다. 전주 KCC와 서울 삼성도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 열전을 펼치고 있다.

이후 6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두 팀은 부산 KT, 울산 모비스와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우승팀을 결정한다.

내달 4월에는 지난 겨울 코트를 뜨겁게 달궜던 '2009-2010 KCC 프로농구'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박태진 기자 tjipppo@etoday.kr



위 팀 간의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 팀으로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거론되는 가운데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은 올 시즌 정상 자리를 놓고 정규리그 우승팀 삼성화재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른다.

박태진 기자 tjipppo@etoday.kr

'물지마 살인'을 담은 영화 '무법자' 개봉



'물지마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 '무법자'가 개봉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범죄를 소재로 다룬 이 영화는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된 자들을 마추한 강력범죄의 분노와 법도, 경찰도 심판하지 못한 범인들을 향한 복수를 그린 영화다. 리얼하고 강렬한 비주얼과 감우성과 장신영, 이승민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배우 감우성의 변신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연애시대'와 영화 '내 사

랑'에서 부드러운 멜로 가이의 모습으로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감우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범죄에 분노를 느끼는 강력범죄 수사 '오정수'로 강렬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것.

감우성은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너무나 강력하고 잔인한 사건들을 쉽게 접하는 무서운 세상을 안타까워했다. 개봉 전 공개한 영상을 본 시민들은 "세상이 진짜 무서워진 것 같다며 솔직히 남자인 저도 무서운데 여자들은 오죽하겠냐",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게 소름 끼친다" 등 영화 '무법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박태진 기자

노홍철-장윤정 열애 9개월 만에 결별

방송인 노홍철(30)과 트로트가수 장윤정(29)이 최근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결별 기사가 보도된 9일 장윤정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여자 연예인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이야기해야 하는 게 참 슬프다"며 결별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남녀가 헤어지는데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시콜콜하게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노홍철과는 서로 나쁜 감정 없이 좋게 잘 정리했고 지금도 편하게 연락 할 수 있는 친구 사이다"고 전했다.

이로써 장윤정과 노홍철은 지난 해 6월 열애 사실을 공개한 뒤 9



개월 만에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친구사이로 돌아갔다.

조승예 기자 syssy@etoday.kr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TEL : 02-717-2111 www.joongangbook.com JDM 중앙출판사

'근래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빨리 읽은 책!' 인터파크 HYUNJIN 독자서평 중

김연아의 7분 드라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분야)

〈김연아의 7분 드라마〉에 쏟아진 독자들의 찬사!

최고를 꿈꾸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 _일리단 승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한다면 강력추천하고 싶은 책 _YES24 무식스네
 감동 그 자체.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읽어야 할 책 _인터파크 hbdh**
 '바른 생각'과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 _YES24 꽃보다
 선수 김연아와 더불어 인간 김연아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책 _교보문고 soyeonqp

김연아의 7분 드라마 / 김연아 글 / 윌컬러 / 값 15,000원



현대그룹, 현대家 본류 자긍심...명가 재건 '꿈'

오너일가 지분 취약... 주력 계열사 적대적 M&A 먹잇감 노출

현대그룹과 현정은 회장에 있어 2010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8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성사시키며 금강산 관광의 불씨를 살려냈지만, 여전히 재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 올 하반기 중에는 현대건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인수는 현 회장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당위성을 역설하며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상선은 경영권 다툼에 노출돼 있다. 시동생인 현대중공업이 최근 해운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현대상선 인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상선·택배 3각 출자구도

현대그룹은 모두 12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적인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현대상선, 현대택배, 현대증권,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자산운용, 현대투자네트워크, 현대유엔아이, 동해해운, 해영선박,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 등이다. 이중 상장회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현대증권 등 3개사다.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현대택배를 중심으로 한 3각 출자구도로 돼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 지분 20.6%를 보유하면서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현대택배(37.31%)를 비롯해 현대아산(58.21%), 현대경제연구원(35.35%), 현대증권(23.17%), 해영선박(80%), 동해해운(51.0%) 등 현 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유엔아이(22.73%)와 합작회사인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10%) 등을 제외한 대부분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올라 있다.

다시 현대택배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9%를 소유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택배→현대엘리베이터의 출자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매출규모에서는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 현대그룹의 2009년 기준 총매출 추정치는 약 11조원 정도. 이중 현대상선이 6조1150억원, 현대증권이 2조9000억원(추정치)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엘리베이터 8000억원, 현대택배 7000억원(추정치) 정도다.

현정은회장 지분 지배력 강화 관건

현정은 회장이 그룹의 오너이기는 하지만 계열사 지분이 적어 그룹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현 회장은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92%를 비롯해 현대증권 0.08%, 현대택배 12.61%, 현대상선 1.51%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현 회장은 현대택배 지분 25.44%를 가진 2대 주주 현대유엔아이의 지분 6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현 회장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 12.61%를 더해 현대택배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올라 있다.

계열사간 지분구조도 불안하다. 지주회사적인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0.6%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는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현대상선 지분 22.14%를 갖고 있다.

단순하게 놓고 보면 언제든 경영권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2006년 현대상선 M&A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해운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업계에서 현대상선 인수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대그룹 측도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현대상선 주식 200만주를 지난 1월 취득한 바 있고, 현 회장 개인도 그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현대투자네트워크 지분을 현대유엔아이로부터 취득,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중단된 대북관광 재개가 부담

하지만 현대그룹의 상징적인 사업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이다. 현대아산은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업인 대북관광사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사업이 중단된 후 20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해 8월 북한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확답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결의 열쇠가 남북 당국자 회담으로 넘어갔지만 양측은 지난 2월 한차례 실무회담을 열고 서로 의견 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긴급 담화를 발표, 금강산·개성관광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고 최악의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이 현대아산의 경영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에 따른 매출손실은 258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영업손실만 300억원이 넘는다.

현대아산 임직원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의 5~15%를 반납하고 관광사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현대건설 인수에 주력

현대그룹의 또 다른 숙원목표인 현대건설 인수전도 빠른 일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2010년 최우선 과제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함께 현대건설 인수를 선정할 만큼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현정은 회장이 현대건설 인수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이를 통해 현대가의 적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또 현대건설을 인수함으로써 그룹의 강력한 성장동력을 확보, 명가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중도 깔려 있다.

하지만 올해 현대건설이 M&A 시장에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하이익스, 대우건설 등 대형 M&A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실령 매물로 나온다면 현대그룹이 인수한다는 장담도 못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6년 만에 시공능력 1위를 탈환했고, 지난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해외사업 수주라는 UAE 원전공사에서도 건설부문 주간사로 참여해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입증받았다.

반면, 현대그룹은 지난 2008년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지만, 지난해에는 해운업황 악화로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을 감안할 경우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그룹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만만치 않은 액수다.

현대그룹이 올해 여러 약재들을 털고 현정은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승풍파랑(承風破浪,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의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의신 기자 philla@etoday.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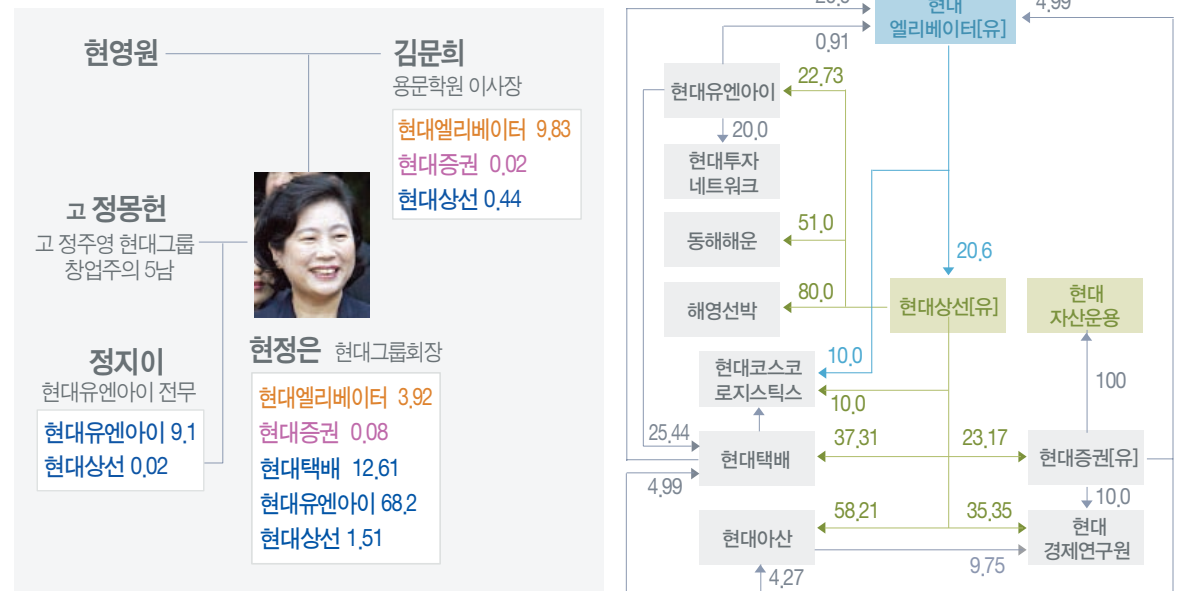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동부금융네트워크

“당신에게 준비된 미래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 동부화재
- 동부생명
- 동부증권
- 동부자산운용
- 동부캐피탈
- 동부저축은행
- 동부금융네트워크

현대그룹 지분구조 현황 (2010년 3월 4일 현재, 지분율%)



현대상선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15.3%(보), 현대삼호중공업이 6.84%(보)를 보유함으로써 최대주주인

신사옥 고객접견실에 새겨진 '현대家 父子'

지난 2일 새롭게 입주한 연지동 현대그룹 신사옥 동관 2층에는 대형 고객접견실이 있다. 외부 방문객들과 회의를 하거나 고객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고객접견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내부 벽면에 선대회장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생전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래픽 기법으로 디자인돼 있다. 또 여기에는 현대그룹의 창업과 발전과정, 업적, 어록 등도 함께 새겨져 있다.

현정은 회장이 신사옥을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곳도 이 곳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뜻도 있지만, 현대그룹의 적통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현정은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룹의 적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 회장이 큰 재미를 못 보면서도 북방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현대건설을 인수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계열사들은 지난 2일 한 자리에 다시 모여 살림을 시작했다. 현대그룹은 2000

년 계동, 무교동, 좌선동 사옥을 줄줄이 매각하면서 흩어졌다. 딱 10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현대그룹 신사옥은 각 계열사의 역량을 모으고 임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황의신 기자 philla@etoday.kr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 두산그룹편 |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연강 박두병 <제 5화> 글·만화 유영수

“우리는 하나의 단계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생성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만 안주해서는 적응력을 잃어버린다. 항상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만이 안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강 박두병 회장이 자주 인용한 헤르만 헤세의 말)

<제 5화> 두산의 모태인 박승직상점



박승직은 두 달 동안 오로지 감자만 먹어가며 강원도 산골을 다니면서 포목을 수집하기도 했다.



이런 오지까지 찾아오는 젊은이도 정말 대단하어.

조상님 덕분에 볼 하나는 든든하게 타고난 덕이죠.



박승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얻은 경험으로 세상을 바로 보는 통찰력이 생겼던 것이다.

아버님, 저도 배오개에다 상점을 하나 마련 하겠어요.

이왕이면 배오개 (종로 4-5가)보다 종로 변화가에 내지 그러냐?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곳이 더 중심 상가가 될 겁니다.

수 년 내에 그곳으로 전차 노선이 깔린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



전차가 깔리면 중심 상권이 배오개와 동대문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정말 그럴것구나!



몸도 몸이지만 이렇게 힘든 산골까지 들어오는 자네의 끈기와 의지력이 대단하단 거여.

편한 것만 찾는 요새 젊은이가 대치를 놔두고 이런 오지만 찾아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고생은 되지만 대처보다는 이런 곳을 다녀야 불건을 더 싸게 구입해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좌우지간 포목을 사러 이곳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일 년 내내 기다려도 자네 뿐이야.



박승직은 전라도 나주, 강진, 경성도 의성, 의흥 등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힘든 오지만을 다니며 물건들을 구입한 것이다.

여기서 짐을 싣고 서울까지 가려면 너도 많이 먹이 줘야 해.



박승직은 부지런히 뛰며 착실히 돈을 모아갔다.

그려, 넌 반드시 해낼 거여.

아버님, 저도 제 이름으로 상점을 하나 갖는 것이 꿈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과 더불어 육의전의 특전이 폐지 되었다.

됐어, 이제야말로 귀천의 구분 없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이 나라가 아무리 문을 꼭꼭 걸어 잠그려 해도 서양에서 부는 도도한 개혁의 물살을 거부할 수는 없어. 그게 지금의 대세여!

이제서야 전에 민영환 대감이 얘기했던 세상이 오는 거구나.



1896년 8월 1일, 박승직은 마침내 종로 4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조그만 점포를 개설한다.



이것은 두산그룹 10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박승직 나이 33세가 되던 해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오로지 근면과 질락으로 이루어낸 결실이었지.



이후 박승직상점은 나날이 번창하여 각 지방에 지점까지 열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한성은행 등 민족기업들이 탄생하게 됨으로써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개화기가 도래했다.

(당시의 한성은행 건물)



박승직은 기업을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민족의 힘으로 키우고자 하여 배오개에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광고에서 장교까지라는 뜻으로 광장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06년에는 훗날 대한상공회의소의 효시가 된 한성상업회소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나는 경제, 생생한 뉴스 이투데이

이투데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모든 독자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뉴스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부자가 되게하는 정보가 있는 뉴스, 이투데이와 함께 멋진 하루를 시작하세요



Economic media

낯선 나라에도 가까운 이웃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건너와 액세서리를 팔던 젊은 커플,
갑자기 비를 만났지만 말 없이 차양을 내려준
꽃집 아저씨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그날,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